

노계 가사 총람

蘆溪 歌辭 總覽

풀어 씀 신 영 산

〈제목 차례〉

1. 太平詞(태평사, 1598)	1
2. 船上歎(선상탄, 1605)	5
3. 莎堤曲(사제곡, 1611)	9
4. 陋巷詞(누항사, 1611)	14
5. 獨樂堂(독락당, 1613)	18
6. 小有亭歌(소유정가, 1617)	24
7. 勸酒歌(권주가, 1632)	30
8. 相思曲(상사곡, 1632)	33
9. 嶺南歌(영남가, 1635)	38
10. 蘆溪歌(노계가, 1636)	41

1. 太平詞(태평사, 1598)

戊戌季冬(무술계동)。釜山屯賊(부산둔적)。乘夜奔潰(승야분궤)。

時公佐左兵使成允文幕(시공좌좌병사성윤문막)。

兵使聞卽率軍馳到釜山(병사문즉솔군치도부산)。留十餘日後還到本營(류십여일후환도본영)。

明日(명일)。使之作此歌(사지작차가)

무술년 늦겨울에 부산에 주둔한 왜적이 밤을 틈타 흩어져 달아났는데, 그때 공(작자)은 강좌병마절도사 성윤문의 막하에서 보좌하고 있었다.

병마절도사가 소식을 듣고 즉시 군사를 이끌고 말을 달려 부산으로 왔다가 십여 일을 머문 후에 본영으로 돌아갔다. 다음날에 이 노래를 짓게 하였다.

나라히 偏小(편소)ᄃ야 海東(해동)에 브려셔도
箕子(기자)¹⁾遺風(풍속)이 古今(고금)업시 淳厚(순후)ᄃ야
二百年來(이백년래)²⁾에 禮義(예의)을 崇尚(숭상)ᄃ니
衣冠文物(의관문물)이 漢唐宋(한당송)³⁾이 되야져니
島夷百萬(도이백만)이 一朝(일조)에 衝突(충돌)ᄃ야
億兆驚魂(억조경혼)이 칼빛출 조차나니
平原(평원)에 사헌 썰는 피두곤 노파 잇고
雄都巨邑(웅도거읍)은 豺狐窟(시호굴)⁴⁾이 되얏거늘
淒涼玉輦(치량옥련)⁵⁾이 蜀中(촉중)⁶⁾으로 피와드니
煙塵(연진)이 아득ᄃ야 日色(일색)이 열위져니
聖天子(성천자)⁷⁾ 神武(신무)⁸⁾ᄃ샤 一怒(일노)를 크게 내야
平壤群兇(평양군흉)을 一劍下(일검하)의 다 버히고
風驅南下(풍구남하)ᄃ야 海口(해구)에 더쳐두고
窮寇(궁구)을 勿迫(물박)ᄃ야
몇몇히를 디내연고

나라가 좁고 작아 해동에 버려졌어도
기자가 끼친 풍속 예로부터 순박하여
이백 년 이래로 예의를 숭상하니
우리의 문화 문물이 한당송이 되었는데
섬 오랑캐 백만이 하루아침에 쳐들어 와
놀라 죽은 수많은 냇이 칼 빛에 내려졌으니
들판에 쌓인 뼈는 산보다 높아 있고
큰 도읍과 큰 고을이 승냥이 굴 되었거늘
치량한 임금 가마 촉나라로 바빠 들고
먼지가 아득하여 햇빛을 가렸으니
천자가 군대 내어 큰 노여움 보이셨네.
평양의 모든 흉적 한칼로 다 베어서
바람처럼 몰아내어 남쪽 바다로 던져두고
궁지의 도적들을 구태여 치지 않고
몇몇 해를 지냈구나.

1) 중국 고대 은(殷)나라의 현인으로 고조선에 와 단군왕검을 이어 기자 조선을 이어 세웠다고 함.

2) 조선이 건국한 후의 이백여 년.

3) 중국의 한(漢)나라, 당(唐)나라, 송(宋)나라를 총칭하는 것으로 중국에서 문화가 가장 발전했던 시대를 이룸.

4) 승냥이와 여우 굴. 여기서는 왜군들의 소굴,

5) 선조가 탄 가마.

6) 본래 의미는 중국의 험한 땅인데, 여기서는 선조가 피신했던 평안도 의주를 가리킴.

7) 당시 명나라 황제인 신종(神宗).

8) 뛰어난 무예와 용맹.

江左一帶(강좌일대)에 孤雲(고운)갓흔 우리 물이
 偶然時來(우연시래)에 武侯龍(무후룡)¹⁾을 幸(행)혀 만나
 五德(오덕)²⁾이 불근 아래 獵狗(엽구) 몸이 되야찌가
 英雄仁勇(영웅인용)을
 喉舌(후설)³⁾에 섰겨시니
 炎方(염방)이 稍安(초안)하고 土馬(사마)⁴⁾精強(정강) 하야찌니
 皇朝一夕(황조일석)에 大風(대풍)⁵⁾이 다시 이니
 龍(용)갓흔 將帥(장수)와 구름갓흔 勇士(용사)들이
 旌旗蔽空(정기폐공)하야 萬里(만리)에 이어시니
 兵聲(병서)이 大振(대진)하야 山岳(산악)을 썩엿는듯
 兵房(병방)⁶⁾御營大將(어영대장)⁷⁾은 先鋒(선봉)을 引導(인도)하야
 賊陣(적진)에 突擊(돌격)하니
 疾風大雨(질풍대도)에 霹靂(벽력)이 즈치는듯
 清正(청정)⁸⁾ 小豎頭(소수도)도 掌中(장중)에 잇것마는
 天雨爲祟(천우위숭)하야 士卒(사졸)이 疲困(피곤)커늘
 저근듯 解圍(해위)하야 士氣(사기)을 쉬우더가
 賊徒(적도)ㅣ 犇潰(분궤)하니 못다 잡아 말년제고
 窟穴(적혈)을 구어보니 구든 덧도 하다마는
 有敗灰燼(유패회진)하니 不在險(부재험)을 알니로다
 上帝聖德(상제성덕)과 吾王沛澤(오왕패덕)이
 遠近(원근) 업시 미쳐시니
 天誅猾賊(천주활적)하야 仁義(인의)를 돕는또다
 海不揚波(해불양파)⁹⁾ 이젠가 너기로라
 無狀(무상)흔 우리 물도 臣子(신자) 되야 이셔더가
 君恩(군은)을 못갓흘가 敢死心(감사심)을 가져이셔
 七載(칠재)를 奔走(분주)터가 太平(태평) 오늘 보완디고

낙동강 동쪽 구름같이 외로운 우리 무리
 우연히도 좋은 장수 다행하게 만나고서
 오덕이 밝은 아래 사냥개처럼 되었다가
 어질고 용감한 우리 영웅들과
 천자의 말씀을 전하는 이가 섞였으니
 남쪽이 편안하고 군마가 강해졌네.
 명 황제 하룻저녁에 큰바람을 일으키니
 용 같은 장수와 구름 같은 용사들이
 깃발로 하늘 덮어 만 리를 이었구나.
 군사 함성 크게 떨쳐 산악을 흔드는 듯,
 병방의 어영대장은 선봉을 이끌어서
 적진으로 돌격하니
 거센 바람 큰비에 벼락이 쏟아지는 듯,
 가등청정 어린애 머리 손아귀에 있건마는
 하늘의 비 말뚝 되어 장수 병졸 피곤하거늘
 잠깐 동안 포위 풀어 군사 기운 쉬었으니
 적의 무리 흩어진들 못다 잡고 말겠는가.
 적 소굴을 굽어보니 튼튼한 듯 하다마는
 패퇴시켜 재가 되니 험한 요새도 소용없네.
 황제의 성덕과 우리 임금 은혜가
 원근을 가리잡고 미쳤으니
 교활한 도적 죽여 인과 의를 돕는구나.
 파도 없는 바다가 지금인가 여기노라.
 변변치 못한 우리들도 신하되어 있었다가
 임금 은혜 못 갚을까 감히 죽으려 하였다가
 칠 년간 분주하다 태평한 오늘 보았구나.

1) 무후는 제갈량(諸葛亮)의 시호, 여기서는 작가가 속한 부대의 장수 성윤문(成允文)을 가리킴.

2) 장수가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덕목으로 지(智), 인(仁), 용(勇), 신(信), 엄(嚴).

3)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의 사신인 심유경(沈惟敬)이 외교로 왜군을 설복시킨 것.

4) 군사와 병마.

5) 정유재란(丁酉再亂)을 가리킴.

6) 군사에 관한 법전인 병전(兵典)을 말아보던 기구

7) 삼군문(三軍門 -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의 하나인 어영청의 우두머리.

8) 가등청정(加藤清正). 임진왜란 때의 일본군 장수.

9) 태평성대

投兵息戈(투병식과)하고
 細柳營(세류영)¹⁾ 도라들제
 太平簫(태평소) 노끈 술의에 鼓角(고각)이 섰거시니
 水宮(수궁) 깊은 곳의 魚龍(어룡)이 다 우는 듯
 龍旗(용기)²⁾ 偃蹇언컨)하야 西風(서풍)에 빗겨시니
 五色祥雲一片(오색양운일편)이 半空(반공)에 썩러던듯
 太平模樣(태평모양)이 더욱흐나 반가올사
 揚弓擧矢(양궁거시)하고 凱歌(개가)를 아뢰오니
 爭唱歡聲(쟁창환성)이 碧空(벽공)에 얼허느다
 三尺霜刀(삼척상인) 興氣(흥기)계워 둘러메고
 仰面長嘯(양면장소)하야 춤을 추려 이려서니
 天寶龍光(천보용광)³⁾이
 斗牛間(두우간)의 소이느다
 手之舞之(수지무지) 足之蹈之(족지도지)
 절노절노 즐거오니
 歌七德(가칠덕) 舞七德(무칠덕)⁴⁾을 그칠 줄 모르로다
 人間樂事(인간낙사) | 이 곳하니 또 인노가

華山(화산)⁵⁾이 어딴오 이 말을 보내고저
 天山(천산)⁶⁾이 어딴오 이 활을 노피거자
 이제야 ㅎ을 일이 忠孝一事(충효일사) 썩이로다
 營中(영중)에 일이 업서 긴 잠 드러 누어시니
 못노라 이 날이 어느 적고
 羲皇盛時(희황성시)⁷⁾를 다시본가 너기로라
 天無淫雨(천무음우)하니 白日(백일)이 더욱 밝다
 白日(백일)이 불그니 萬方(만방)에 비취노다
 處處溝壑(처처구학)에 흐터잇던 老羸(노리)드리
 東風新鷺(동풍신연)가치 舊巢(구소)을 츠자오니

무기를 던져두고 병사들을 쉬게 하고
 군기 엄한 군영으로 돌아올 때
 태평소 높은 소리에 북과 나팔 섞였으니
 수궁 깊은 곳에 고기떼들 다 웃는 듯
 교룡기가 휘날려서 서풍에 나부끼니
 오색구름 한 조각이 공중에 떨어진 듯
 태평한 이 모습이 더욱이나 반갑구나.
 활과 화살을 높이 들고 개선거를 아뢰오니
 다투는 듯한 함성소리 하늘에 어리도다.
 서리 어린 삼척 칼을 흥에 넘쳐 둘러메고
 얼굴 들고 휘파람 불며 춤을 추며 일어서니
 하늘이 내려 주린 용천검의 광채가
 북두칠성과 견우성 사이에서 쏘이도다.
 손으로 춤을 추고 발 굴러 뛰어다녀
 절로 절로 즐거우니
 칠덕가, 칠덕무를 그칠 줄 모르도다.
 인간의 즐거움이 이 같은 게 또 있는가.

화산이 어디인가 이 말을 보내고자.
 천산이 어디인가 이 활을 높이 걸자.
 이제야 남은 일은 충효 한 가지 뿐이로다.
 감영 안에 일이 없어 긴 잠 들어 누웠으니
 문노라, 이 날이 어느 땐가.
 복희씨 태평 시대 다시 본 듯 여겨진다.
 굶은비는 멎어가고 밝은 해가 더욱 밝다.
 햇빛이 밝으니 온 세상에 비취도다.
 곳곳의 골짜기에 흩어져 있던 늙은이들
 동풍에 제비같이 옛집을 찾아오니

1) 군기가 엄한 군영을 뜻함. 중국 한나라 때 주아부(周亞夫)가 장군이 되어 세류(細柳)에 진(陣)을 쳤을 때 다른 진영보다 군율이 매우 엄했으므로 한 문제가 크게 감동하여 붙인 이름.

2) 교룡기(蛟龍旗). 임금이 거동할 때에 행렬의 앞에 세우던 기.

3) 옛날 장수들이 쓰던 보검.

4) 중국 당나라 태종의 무공(武功)의 일곱 덕을 기리는 노래와 춤.

5) 중국의 오악의 하나. 주나라 무왕이 천하를 평정하고 타던 말을 화산 남쪽에 놓아버렸다 함.

6) 중국 신강성(新疆省)에 있는 높은 산으로 한나라 문제 때 이광(李廣)은 흉노를 쳐서 물리쳤다 함.

7) 복희씨(伏羲氏).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으로 팔괘를 처음으로 만들고, 그물을 발명하여 고기잡이의 방법을 가르쳤다고 함.

首邱初心(수구초심)에 뉘아니 반겨하리
爰居爰處(원거원처)에 즐거움이 엇더흔뇨
予遺生靈(혈유생령)들아 聖恩(성은)인 줄 아느슨다
聖恩(성은)이 기쁜 아리 五倫(오륜)을 맡켜스라
敎訓生聚(교훈생취) | 라
절로 아니 넘어가라
天運循環(천운순환)을 아옵게다 하느님아
佑我邦國(우아방국)하샤 萬世無疆(만세무강) 누리소서
唐虞天地(당우천지)¹⁾에 三代日月(삼대일월)²⁾ 비최소서
於萬斯年(어만사년)에 兵革(병혁)을 그치소서
耕田鑿井(경전작정)에 擊壤歌(격양가)³⁾을 불니소서
우리도 聖主(성주)을 띄우고 同樂太平(동락태평) 하오리라

고향을 그리워하니 뉘 아니 반겨하리.
여기저기 옮겨 사니 즐거움이 어떠한고.
살아남은 백성들아, 성은을 잊지 마라.
성은이 깊은 아래 오륜을 밝혀 보세.
군대를 튼튼히 하라 교훈을 얻었으니
백성들 절로 아니 이어가랴.
천운이 바뀌어짐을 알겠도다, 하느님아.
우리나라 도우시어 만세무강 누리소서.
요순 같은 태평시대 삼대 일월 비추소서.
천만 년 동안에 전쟁을 없애소서.
밭 갈고 우물 파서 격양가를 부르게 하소서.
우리도 성주 모시고 함께 태평 즐기리라.

1) 당은 요임금, 우는 순임금.

2) 중국 상고시대인 하은주(夏殷周)의 세 나라.

3) ‘땅을 치며 노래한다’는 뜻으로 요임금 때의 태평세월을 의미함.

2. 船上歎(선상탄, 1605)

時(시)。國家尙憂南陲(국가상우남수)。選公統舟師(선공통주사)。
赴防釜山(부방부산)。公臨船作此曲(공림선작차곡)。

이때 나라에서 남쪽 변경 때문에 아직 걱정이 많을 때, 공(작자)을 통주사(統舟師)로 임명하였다.
부산으로 부임해 가면서, 공께서 배 위에서 이 노래를 지었다.

늙고 病(병)든 몸을 舟師(주사)¹⁾로 보낸실식
乙巳(을사)²⁾ 三夏(삼하)에 鎭東營(진동영) 내려오니
關防重地(관방중지)³⁾에 病(병)이 깊다 안자실라
一長劍(일장검) 비기 차고 兵船(병선)에 구테 올라
勵氣瞋目(여기진목)하야 對馬島(대마도)을 구어보니
 바람 조친 黃雲(황운)⁴⁾은
遠近(원근)에 사혀 있고
아득한 滄波(창파)는 긴 하늘과 혼빛칠쇠

船上(선상)에 徘徊(배회)하며 古今(고금)을 思憶(사억)하고
어리미친 懷抱(회포)에 軒轅氏(현원씨)⁵⁾를 애드노라
大洋(대양)이 茫茫(망망)하야 天地(천지)에 둘러시니
진실로 비 아니면 風波萬里(풍파 만리) 맞고
어느 四夷(사이)⁶⁾ 엿볼넉고
무슨 일 하려 하야 비 못기를 비릇히고
萬世千秋(만세천추)에 ㄴ업슨 큰 弊(폐) 되야
普天下(보천지하)에 萬民怨(만민원) 길우느다
어즈버 켜드라니 진시황(秦始皇)의 타시로다
비 비록 있다 하나 倭(왜)를 아니 삼기던들
日本(일본) 對馬島(대마도)로 뵈 비 절로 나을넉가

늙고 병든 몸을 통주사로 보내시어
을사년 한여름에 부산진에 내려오니
변방에서 병이 깊다 앓아 있겠는가.
긴 칼을 비껴 차고 병선에 감히 올라
기운 떨쳐 눈 부릅뜨고 대마도를 굽어보니,
바람이 부는 대로 타오르는 구름은
멀고 가깝게 쌓여 있고
아득한 푸른 물결 긴 하늘과 한 빛일세.

배 위에서 배회하며 옛일과 지금 생각하니
어리석은 마음으로 현원씨를 애달파 하네.
큰 바다가 아득하여 온 세상을 둘러오니
참으로 배 아니면 풍파 심한 만 리 밖에
어찌 네 오랑캐가 엿보았을 것인가.
무슨 일 하려 하여 배 만들기 시작했나.
오랜 세월 끝없는 큰 폐단이 되어
넓은 하늘 아래 만백성의 원한을 키웠구나.
어즈버 깨달으니 진시황의 탓이로다.
배가 비록 있다 해도 왜를 아니 만들었으면
일본 대마도서 빈 배 절로 나왔을까.

1) 수군 함장.

2) 선조 38년, 1605

3) 변방의 중요한 땅.

4) 전운(戰雲)이 일어남.

5) 중국의 전설 속의 고대 천자로 현원의 언덕에서 낳았기 때문에 현원씨라고 함. 배와 수레를 창조하여 교통을 편리하게 함.

6) 중국의 사방에 있던 동이(東夷), 서융(西戎), 남만(南蠻), 북적(北狄)을 통틀어 이르던 말. 여기서는 왜적을 가리킴.

뉘 말을 미더듯고,
童男女(동남동녀)를 그딴도록 드러다가
海中(해중) 모든 섬에
難當賊(난당적)¹⁾을 기쳐 두고
痛憤(통분)흔 羞辱(수욕)이 華夏(화하)에 다 밋나다
長生(장생) 不死藥(불사약)을 얼미나 어더 너여
萬里長城(만리 장성) 놓히 사고 몇 萬年(만년)을 사도편고
늑딴로 죽어 가니 有益(유익)흔 줄 모르로다
어즈버 생각하니 徐市(서불)²⁾ 等(등)이 已甚(이심)하다
人臣(인신)이 되야셔 亡命(망명)도 하는 것가
神仙(신선)을 못 보거든 수이나 도라오면
舟師(주사)이 시림은 전혀 업게 삼길렀다

두어라, 既往不咎(기왕불구)라 일너 무엇호로소니
속절업슨 是非(시비)를 후리쳐 더더 두자
潛思覺悟(잠사각오)하니 내 뜻도 고집(固執)고야
黃帝(황제)³⁾ 作舟車(작주거)는 윈 줄도 모르로다
張翰(장한) 江東(강동)⁴⁾에 秋風(추풍)을 만나신들
扁舟(편주)곳 아니 타면 天淸海濶(천청해활)하다
어디 興(흥)이 절로 나며
三公(삼공)도 아니 밧골 第一江山(제일강산)에
浮萍(부평) 又흔 漁父生涯(어부생애)을
一葉舟(일엽주) 아니면, 어디 부쳐 든힐논고
일언 닐 보건딘
비 삼긴 制度(제도)야 至妙(지묘)흔 덧하다마는
엇디흔 우리 물은 논는 듯흔 板屋船(판옥선)⁵⁾을
晝夜(주야)의 밧기 타고
臨風咏月(임풍영월)호되 興(흥)이 전혀 업는게오

뉘 말을 믿어 듣고
어린 사내 계집아이 그토록 데려다가
바다 가운데 모든 섬에
감당하기 힘든 도적을 끼쳐 두었으니
원통함과 부끄러움이 중국까지 미쳤구나.
장생 불사약을 얼마나 얻어내어
만리장성 높이 쌓고 몇 만 년을 살았는가.
남들처럼 죽었으니 유익한 줄 모르겠다.
어즈버 생각하니 서불도 심하구나.
신하의 몸이 되어 망명을 하였는가.
신선을 못 만나면 곱게나 돌아왔으면
통주사의 이 근심은 생기지 않았으리.

두어라, 지난 일을 탓하여 무엇하리.
속절없는 시빗거리 팽개쳐 던져두자.
깊이 생각하니 내 뜻도 고집스럽구나.
황제가 배 만듦은 그릇되지 않았어라.
장한이 강동에서 가을바람을 만났어도
작은 배를 아니 타면 하늘 맑고 바다 넓어도
어찌 흥이 절로 나며,
삼정승과 아니 바꿀 경치 좋은 강산에서
개구리밥처럼 떠다니는 어부 생활을
작은 배가 아니면 어디 맡겨 다닐런고.
이런 일을 보자 하니,
배를 만든 제도야 매우 묘한 듯하지만,
어찌하여 우리들은 나는 듯한 판옥선을
밤낮으로 비껴 타고
바람 맞고 달을 읊되 흥이 전혀 없는 게오.

1) 왜적.

2) 중국 진(秦)나라 때의 사람으로 진시황의 명으로 동남동녀 3천 명을 데리고 불사약을 구하러 바다 끝 신산(神山)으로 배를 타고 떠났으나,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함. 그 때 머물렀던 곳이 일본이라 전해짐.

3) 현원씨.

4) 張翰江東去 正值秋風時(장한강동거 정치추풍시), 장한이 멀리 강동으로 떠나가니 마침 가을바람에 낙엽 지는 계절을 맞았구나. - 이백(李白), '송장사인지강동(送張舍人之江東)'. 장한(張翰)은 중국 진나라 사람으로, 왕이 대사마(大司馬)를 삼았으나, 가을바람이 불자 고향의 농어회가 그리워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인 강동으로 돌아갔다 함.

5) 조선시대 수군의 대표적인 전투선이며 노를 젓는 노꾼은 1층 전투원은 2층에 배치함.

昔日(석일) 舟中(주중)에는 杯盤(배반)이 狼藉(낭자)터니
 今日(금일) 舟中(주중)에는 大劍長鋸(대검장창)뿐이로다
 흥 가지 비언마는 가진 비 달라니
 其間(기간) 憂樂(우락)이 서로 갖지 못하도다

時時(시시)로 멀리 드러 北辰(북신)¹⁾을 바라보며
 傷時(상시) 老淚(노루)를
 天一方(천일방)의 디어느다
 吾東方(오동방) 文物(문물)이
 漢唐宋(한당송)에 디라마는
 國運(국운)이 불행(不幸)하야 해주(海醜) 흉모(兇謀)에
 萬古羞(만고수)를 안고 이서
 百分(백분)에 흥 가지도 못 시서 브려거든
 이 몸이 無狀(무상)흔들 臣子(신자)ㅣ 되야 이서다가
 窮達(궁달)²⁾이 길이 달라 몬 피옴고 늘거신들
 憂國丹心(우국 단심)이야 어닉 刻(각)에 이즐넉고
 慷慨(강개) 계운 壯氣(장기)는 老當益壯(노당익장) 하다마는
 도고마는 이 몸이 病中(병중)에 드러시니
 雪憤伸冤(설분 신원)이 어려울 듯 하건마는
 그러나 死諸葛(사제갈)도 生仲達(생중달)을 멀리 좃고³⁾
 발 업슨 孫臏(손빈)도 龐涓(방연)을 잡아거든⁴⁾
 하물며 이 몸은 手足(수족)이 ㄴ자 잇고
 命脈(명맥)이 이어시니
 鼠竊拘偷(서절 구투)을 저그나 저홀소나
 飛船(비선)에 둘러드러 先鋒(선봉)을 거치면
 九十月(구시월) 霜風(상풍)에 落葉(낙엽)가치 헤치리라
 七縱七禽(칠종칠금)을 우리들 못 홀 것가⁵⁾

예전 배 안에는 술상이 어지럽더니
 지금 배 안에는 큰 칼 긴 창뿐이구나.
 똑같은 배이지만 가진 것이 다르니
 그간 근심 즐거움이 서로 같지 못하도다.

때때로 머리 들어 북극성을 바라보며
 세상을 근심하는 늙은이의 눈물이
 하늘 한 모퉁이에 떨어진다.
 우리 조선 문물이
 한당송에 뒤떨어 지겠냐마는
 국운이 불행하여 해적의 흉한 꾀에
 영원히 씻기 힘든 수치를 안게 되어
 백 분의 한 가지도 씻어 내지 못했거든,
 이 몸이 못났어도 신하가 되었으니
 신하와 임금으로 못 모시고 늙어간들
 나라 위한 충성심을 한 때라도 잊을런가.
 썩썩한 기운이야 늙을수록 장하지만,
 불품없는 이 몸이 병중에 들었으니
 분을 씻고 원한 풀기 어려울 듯 하겠지만
 그러나 죽은 공명 산 중달을 멀리 좃고,
 발이 없는 손빈이 방연도 잡았는데,
 하물며 내 몸은 손발이 온전하고
 아직도 내 명이 살아 남아 있으려니
 개와 같고 쥐와 같은 도적들이 두려울까.
 나는 듯한 배를 타고 선봉으로 몰아치면
 구시월 서릿바람 낙엽처럼 물리치리라.
 칠종칠금을 우리인들 못할 것인가.

1) 북극성. 임금을 가리킴. 爲政以德 譬如北辰 居其所 而衆星共之(위정以德 비여북신 거기소 이중성공지), 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북극성은 제자리에 있고 모든 별들이 그를 바라보며 따르는 것과 같다. - “논어(論語)”, ‘위정(爲政)’ 편.

2) 곤궁과 영달로 신하와 임금의 처지.

3) 평생 제갈공명을 두려워하던 중달이 공명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쳐들어갔으나, 공명이 의적이 가마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도망쳤다는 고사.

4) 손빈과 방연은 전국 시대의 명법가. 방연이 손빈의 재주를 시기하여 발을 잘랐으나, 뒤에 방연이 손빈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고사.

5) 제갈공명이 남만의 맹획을 칠 때, 일곱 번 사로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주었다는 고사로 마음대로 할 수 있음을 의미함.

蠡彼島夷(준피 도이)들아 수이 乞降(걸항) ㅎ야스라
降者不殺(항자 불살)이니 너를 구티 殲滅(섬멸) ㅎ라
吾王(오왕) 聖德(성덕)이 欲並生(욕병생) ㅎ시니라
太平天下(태평 천하)애 堯舜(요순) 君民(군민) 되야 이서
日月光華(일월광화)¹⁾는 朝復朝(조부조) ㅎ얏거든
戰船(전선) 트던 우리 몸도 漁舟(어주)에 唱晚(창만) ㅎ고
秋月春風(추월춘풍)에 눕히 베고 누어 이서
聖代(성대) 海不揚波(해불 양파)²⁾를
다시 보려 ㅎ노라

꾸물거리는 섬 오랑캐야, 빨리 항복하려무나.
항복하면 살려두니 너희 구태여 죽이겠나.
우리 성주 성덕으로 함께 살자 하시느니라.
태평스런 요순시대 임금 백성 되어 있어
성주의 밝은 은혜 아침마다 밝게 비치니,
전선 타던 우리들도 고깃배서 노래하고
가을 달 봄바람을 높이 베고 누워서
성군 시대 파도가 일지 않는 바다를
다시 보려 하노라.

1) 해와 달의 빛나는 기운으로 성은(聖恩)을 상징함.

2) 태평성대

3. 莎堤曲(사제곡, 1611)

萬曆辛亥春(만력신해춘)。漢陰大鑒命作此曲(한음대감명작차곡)。
 莎堤勝地名(사제승지명)。在龍津江東距五里許(재용진강동거오리허)。
 大鑒江亭所在處也(대감강정소재처야)。

만력 신해년(1611) 봄 한음(漢陰) 대감이 이 곡을 짓게 명하셨다.¹⁾
 사제는 명승지로 용진강 동쪽 5리쯤에 있으니 대감의 강가 정자가 있는 곳이다.

어리고 拙(줄)흔 몸애 榮寵(영충)이 已極(이극)하니
 鞠躬盡瘁(국궁진취)²⁾해야 죽어야 말녀 너겨
 夙夜匪懈(숙야비해)³⁾해야 밤을 낮고 思度(사도)흔들
 관솔의 현 불로 日月明(일월명)⁴⁾을 도울는가
 尸位伴食(시위반식)⁵⁾을 몇 하나 지내연고
 늘고 病(병)이 드러 骸骨(해골)을 빌리실식⁶⁾
 漢水東(한수동) 짜흐로 訪水尋山(방수심산)해야
 龍津江(용진강)⁷⁾ 디내 올라 莎堤(사제)안 도라 드니
 第一江山(제일강산)이 임지 업시 브려느다
 平生夢想(평생 몽상)이 오라해야 그러던지
 水光山色(수광산색)이 넷 늦출 다시 본 듯
 無情(무정)흔 山水(산수)도 有情(유정)해야 보이느다

白沙汀畔(백사정반)의 落霞(낙하)을 밋기 썩고
 三三五五(삼삼오오)히 섰기 노는 더 白鷗(백구)야
 너드려 말 못자 놀네티 마라스라

어리석고 못났어도 임금 총애 지극하니
 힘을 다한 나랏일을 죽어야 그만두려.
 새벽부터 게으름 없이 밤을 잇고 생각한들
 관솔에 켜둔 불로 일월을 도울런가.
 재주 없이 벼슬하며 몇 해를 지냈는가.
 늙고 병이 들어 벼슬을 그만 두고
 한강 동쪽 땅으로 물을 찾고 산을 찾아
 용진강 거슬러서 사제 안에 돌아드니
 경치 제일 좋은 곳이 임자 없이 버려졌네.
 한평생 꿈꾼 생각 오래여서 그렇던지
 물빛과 산 빛같이 옛 얼굴 다시 본 듯
 무정한 산수도 정이 있어 보이누나.

흰 모래 깔린 물가에 저녁노을 비껴 피니
 삼삼오오 섞여 노는 저 갈매기야.
 너에게 말 물어보자. 놀라지 말려무나.

1) 사제(莎堤)는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이 말년을 지냈던 남양주 운길산 남쪽 기슭으로, 북한강 북쪽 지역. ‘사제곡(莎堤曲)’은 작자가 이덕형을 찾아가 그곳에 한가로이 지내는 이덕형의 생활을 그린 것으로, 작자는 박인으로 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의 주인공은 이덕형으로 박인로가 대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鞠躬盡瘁 死而後已(국궁진취 사이후이), 몸을 굽혀 모든 힘을 다하며 죽은 후에야 그만둔다. - 제갈량(諸葛亮) ‘후출사표(後出師表)’

3) 夙夜匪懈 以事一人(숙야비해 이사일인), 새벽부터 밤늦도록 게을리 하지 않고 임금을 섬긴다. - “시경(詩經)” ‘대아(大雅) 증민(烝民)’

4) 임금의 성덕

5) 별다른 능력도 없는 높은 벼슬아치를 놀림조로 이르는 말.

6) 걸해골(乞骸骨), 해골을 빈다는 말로 벼슬아치가 벼슬에서 물러나기를 임금에게 간청할 때 썼던 말.

7) 북한강 양수리 지역의 지류.

이 名區(각구) 勝地(승지)을 어드라 드러쥔다
 碧波 | (벽파) 洋洋(양양)하니 渭水(위수) 伊川(이천)¹⁾ 아닌 게오
 層巒(층란)이 兀兀(울울)하니 富春(부춘) 箕山(기산)²⁾ 아닌 게오
 林深 路黑(임심노흑)하니 晦翁 雲谷(회옹 운곡)³⁾ 아닌 게오
 泉甘(천감) 土肥(토비)하니 李愿(이원) 盤谷(반곡)⁴⁾ 아닌 게오
 世遠人亡(세원인망)하니
 千載(천재) 孤蹤(고종)이 아득히 굿쳐시니
 徘徊 思憶(배회사억)하니 아모딘 줄 내 몰내라

崖芝(안지)⁵⁾ 汀蘭(정란)은
 清香(청향)이 郁郁(옥옥)하니 遠近(원근)에 이어 있고
 南澗東溪(남간동계)에
 落花 | (낙화) ㄴ득 줍겨거늘
 荊棘(형극)을 헤쳐 드러 草屋數間(초옥수간) 지어 두고
 鶴髮(학발)을 피시고 終孝(종효)를 하려 너저
 爰居爰處(원거원처)하니 此江山之(차강산지)⁶⁾ 임재로다
 三公(삼공) 不換(불환)
 이 강산을 오늘스 아라고야
 나는 말업시 수이도 밋고완자
 恒產(항산)⁷⁾도 보려하니 희움업시 잇노왜라
 어즈러운 鷗鷺(구로)와
 數(수) 업슨 麋鹿(미록)을
 내 혼자 거느려 六畜(육축)⁸⁾을 삼아거든
 淸風明月(청풍명월)⁹⁾은 절로 己物(기물) 되야시니
 늙과 다른 富貴(부귀)는 이 혼 몸애 ㄴ자쑈야

경치 좋은 이름난 이곳 어디라고 들었느냐.
 푸른 물결 넘실대니 위수 이천 아니런가.
 산이 층층 우뚝하니 부춘 기산 아니런가.
 산이 깊어 길 어두우니 회옹 운곡 아니런가.
 샘이 달고 땅 기름지니 이원 반곡 아니런가.
 그때 세상 멀어져서 사람들은 모두 죽어
 천년 전의 외로운 종적 아득히 끊어졌으니
 배회하며 생각하되 예 어디인지 나 몰라라.

언덕 위의 지초와 강가의 난초는
 맑은 향이 서려 있어 원근으로 이어 있고
 남쪽의 시내와 동쪽의 계곡에는
 떨어진 꽃잎들이 가득히 잠겼거늘
 가시덤굴 헤쳐 들어 초가 몇 칸 지어 두고
 늙은 부모 모시고 남은 효도 하려 하여
 이리저리 자리 찾아 이 강산의 임자 되네.
 삼정승과 아니 바꿀
 이 강산을 오늘에야 알았구나.
 나는 말없이 쉽게도 바꾸었으니.
 내 것으로 보려 하고 생각 없이 있는구나.
 어지러운 갈매기와 해오라기
 수많은 사슴과 고라니를
 내 혼자 거느려 가축으로 삼았으며
 값없는 청풍명월은 절로 내 것 되었으니
 남과 다른 부귀를 이 한 몸에 가졌구나.

- 1) 위수는 중국 주나라의 강태공(姜太公)이 낚시하던 중국 섬서성(陝西省)에 있는 황하(黃河)의 한 지류이고, 이천은 중국 송나라 유학자 정이(程頤)가 살았던 중국 허난성(河南省)에 있는 강.
- 2) 부춘은 중국 후한 광무제 때 엄자릉(嚴子陵)이 숨어 살던 곳이고, 기산은 중국 요임금 때 소부(巢父)와 허유(許由)가 숨어 살던 산.
- 3) 회옹은 중국 남송 유학자인 주희(朱熹)의 호, 운곡은 주희가 살았던 곳.
- 4) 이원은 중국 당나라의 학자이고, 반곡은 이원이 은거했던 암혈이 있던 곳.
- 5) 지초는 영지버섯.
- 6) 爰居爰處 爰喪其馬 于以求之 于林之下(원거원처 원상기마 우이구지 우림지하)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머물던 곳에서 타던 말까지 잃어버려 어디 갔는지 모르는구나. 어디 가서 말을 찾을까, 숲 아래를 헤매이네. - “시경(詩經)” ‘패풍(邶風) 격고(擊鼓) 편’.
- 7) 살아갈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
- 8) 소, 말, 돼지, 양, 개, 닭 등 여섯 종의 가축.
- 9) 淸風明月不用一錢買 玉山自倒非人推(청풍명월불용일전매 옥산자도비인추),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사는 데는 돈 한 톨도 들지 않으니, 옥산이 절로 무너졌지 사람이 밀치는 것 아니라네. - 이백(李白) ‘양양가(襄陽歌)’

이 富貴(부귀) 가지고 저 富貴(부귀) 부를소냐
 부를 줄 모르거든 사귄 줄 알리던가
 紅塵(홍진)도 머러 가니 世事(세사)을 듯볼소냐
 花開葉落(화개엽락) 아니면
 어니 節(절)을 알리련고

中隱菴(중은암)¹⁾ 쇠뿔소리 谷風(곡풍)의 섯거 느라
 梅窓(매창)의 이르거든 午睡(오수)를 갓 켜야
 病目(병목)을 여러 보니 밤새에 갓핀 가지
 暗香(암향)을 보내여 봄철을 알외느다
 春服(춘복)을 뵈야 麗景(여경)이 더된 저기
 靑藜杖(청려장) 빗기 쥐고 童子(동자) 六七(육칠) 불너내야
 속님 난 잔씨에 足容重(족용중)²⁾케 훗거리
 淸江(청강)의 발을 씻고 風乎江畔(풍호강반)하야
 興(흥)을 타고 도라오니
 舞雩詠而歸(무우영이귀)³⁾를
 저그나 부를소냐
 春興(춘흥)이 이러커든 秋興(추흥)이라 저글넌가
 金風(금풍)이 슬슬하야 庭畔(정반)에 지닌 부니
 머괴입 지는 소리 먹은 귀를 놀리느다⁴⁾
 正值秋風(정치추풍)⁵⁾을 中心(중심)에 더욱 반겨
 낙딴을 둘러메고 紅蓼(홍료)을 헤쳐 드리
 小艇(소정)을 글러 노화
 風帆浪楫(풍범낭楫)집으로
 가는 덕로 더더 두니
 流下前灘(유하전탄)하야 淺水邊(천수변)에 오도고야
 夕陽(석양)이 거윈 적의 江風(강풍)이 짐즉 부러
 歸帆(귀범)을 보느는 듯

내 부귀 가지고 남의 부귀 부러울 소냐.
 부러울 줄 모르거니 세상사람 사귄런가.
 속된 세상 멀어지니 세상일을 듣고 볼 소냐.
 꽃이 피고 잎 지지 않는다면
 어찌 계절 알리련가.

중은암의 종소리 바람결에 섞여 날아
 매화 핀 창 이르르니 낮잠을 갓 깨어
 앓는 눈을 열어 보니 밤비에 갓 핀 가지
 은은한 향내 보내어 봄철을 아뢰누나.
 봄옷을 재촉해 입고 봄 경치 끝날 때에
 청려장 빗겨 쥐고 동자 예닐곱 불러 내어
 속임 난 잔디 위를 조심조심 걸어가며
 맑은 물에 발을 씻고 강가에서 바람 쐬며
 흥을 타고 돌아오니
 무우대서 시 읊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조금이나 부러우랴.
 봄날 흥이 이러거든 가을 흥이 적을런가.
 가을바람 솔솔 불어 뜰 가로 지나 부니
 오동잎 지는 소리 어두운 귀 놀라도다.
 마침 부는 가을바람 마음으로 더욱 반겨
 낙숫대 둘러메고 붉은 여뀌 헤쳐 들고
 작은 배를 끌러 놓아
 바람으로 돛을 삼고 물결로 노를 삼아
 떠 가는 대로 던져두니
 앞 여울로 흘러내려 얇은 물가로 오는구나.
 석양이 저문 때에 강바람이 절로 불어
 집으로 돌아가자 배를 재촉하는 듯,

1) 사제에 있는 암자

2) 발걸음을 무겁게. 곧 걸음을 짐작게.

3) 莫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막춘자 춘복기성 관자오육인 동자육칠인 육호기 풍호무우 영이귀), 늦은 봄에 봄옷을 지어 입은 뒤, 어른 대여섯 명과 어린아이 예닐곱 명과 함께 기수(沂水)에서 목욕을 하고 무우대(舞雩臺)에서 바람을 쐬고는 노래를 읊조리며 돌아오겠다. - “논어(論語)”, ‘선진(先進)’

4) 바람 소리를 듣고 가을임을 깨달음.

5) 張翰江東去 正值秋風時(장한강동거 정치추풍시), 장한이 멀리 강동으로 떠나가니 마침 가을바람에 낙엽 지는 계절을 맞았구나. - 이백(李白), ‘송장사인지강동(送張舍人之江東)’. 장한(張翰)은 중국 진나라 사람으로, 왕이 대사마(大司馬)를 삼았으나 가을바람이 불자 고향의 농어회가 그리워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함.

아득든 前山(전산)도 忽後山(홀후산)의 보이느다
 須臾羽化(수유우화)¹⁾ ㅎ야 蓮葉舟(연엽주)에 올라는 듯
 東坡(동파)²⁾ 赤壁遊(적벽부) ㄴ들 이 내 興(흥)에 엇지 더며
 張翰(장한) 江東去(강동거) ㄴ들 오늘 景(경)에 미출년가
 居水(거수)에 이러커든 居山(거산)이라 偶然(우연) ㅎ라
 山房(산방)의 秋晚(추만) 커늘 幽懷(유회)를 둘 디 업서
 雲吉山(운길산) 돌길히 막디 집고 쉬여 올라
 任意 逍遙(임의 소요) ㅎ며 猿鶴(원학)을 벗을 삼아
 喬松(교송)을 비기여 四隅(사우)로 도라 보니
 天工(천공)이 工巧(공교) ㅎ야 뭇빛쉴 쉼이느가
 흰 구름 맑은 ㄴ는 片片(편편)이 썬여 나라
 노푸락 나지락 峰峰 谷谷(봉봉 곡곡)이
 面面(면면)에 버섯썬든
 서리낀 신남기 봄 꽃도곤 불거시니
 錦繡屏風(금수병풍)을 疊疊(첩첩)이 둘너는 듯
 힘 세이 다토면 내 분에 올라마는
 千態萬象(천태만상)이 僭濫(참람) ㅎ야 보이느다
 禁(금) ㅎ리 업슬식 나도 두고 즐기노라

ㅎ물며 南山(남산) ㄴ린 𨸗히
 五穀(오곡)을 가초 심거 먹고 못 남아도
 𨸗지나 아니 ㅎ면
 내 집의 내 밥이 그 맛시 엇도 ㅎ노
 採山 釣水(채산 조수) ㅎ니
 水陸品(수륙품)도 𨸗간 𨸗다
 甘旨奉養(감지봉양)을
 足(족)다사 ㅎ가마는
 烏鳥含情(오조함정)³⁾을 𨸗고야 말렛노라
 私情(사정)이 이러 ㅎ야 아직 물러나와신들
 罔極(망극) ㅎ 聖恩(성은)을 어니 刻(각)에 이질넌고

아득하던 앞산이 홀연 뒷산으로 보이누나.
 잠깐 사이 ㄸ이 나서 연잎배에 올랐는 듯
 소동파 적벽부인들 이내 흥에 어찌 더하며
 장한이 강동에 간들 오늘 경치에 미칠런가.
 물가 삶이 이렇거든 산속이라 다르겠나.
 산방에 가을이 오니 회포를 둘 데 없어
 운길산 돌길을 막대 짚고 쉬며 올라
 마음대로 거닐면서 원숭이와 학을 벗 삼아
 큰 소나무 빗기어 사방을 돌아보니
 조물주 솜씨 교묘하여 산 빛을 꾸미는가.
 흰 구름 맑은 내를 조각조각 떼어내어
 높으락 낮으락 봉우리 골짜기마다
 곳곳에 벌려 있거든
 서리맞은 단풍나무 봄꽃보다 붉었으니
 수놓은 비단 병풍 겹겹이 둘렀구나.
 힘센 이와 다툼다면 내 분수로 얻을까마는
 천만 모습이 분수 넘어 방자하게 보이누나.
 금하는 이 없을 새 나도 두고 즐기노라.

하물며 남산으로 흘러내린 끝자락에
 오곡을 갖춰 심고 먹고 못 남아도
 그치지나 아니하면
 내 집의 내 밥이 그 맛이 어떠 하뇨.
 산에서 나물 캐고 물에서 낚시하니
 물이나 땅의 음식 잠시나마 갖추어서
 맛있는 음식으로 부모님을 받드는 일
 만족하다 할까마는
 까마귀의 마음을 베풀고야 말겠노라.
 내 생각이 이러하여 멀리 물러나 있다 해도
 망극한 성은을 어느 때에 잊을런가.

1) 縱一葦之所如 凌萬頃之茫然 浩浩乎如馮虛御風 而不知其所止 飄飄乎如遺世獨立 羽化而登仙 (종일위지소여 능만경 지망연 호호호여풍허어풍 이부지기소지 표표호여유세독립 우하이등선), 한 조각 작은 배 가는 대로 내어 맡기고 망망한 만경창과를 건너간다. 넓고 넓은 것이 허공을 타고 바람을 모는 듯, 그 머무는 곳을 모르겠고 가벼이 떠 올라 속세를 버리고 우뚝 서 있는 듯, 날개 돋아 신선이 되어 하늘을 오르는 듯하다. - 소동파(蘇東坡) '적벽부(赤壁賦)'

2) 소식(蘇軾). 중국 북송의 문인으로 당송 팔대가의 한 사람. 대표 작품으로 '적벽부(赤壁賦)'가 있음.

3) 반포지효(反哺之孝)

犬馬微聲(견마미성)¹⁾은 白首(백수)에야 더욱 깊다
 時時(시시)로 머리 드리 北辰(북신)²⁾을 바라보니
 늙 모르는 눈물이 두 사막에 다 젖는다
 이 눈물 보건된 참아 물너날까마는
 不才(부재)에 病(병)하나 디터 가고
 萱堂(훤당)³⁾ 老親(노친)은 八旬(팔순)이 거의거든
 湯藥(탕약)을 그치며 定省(정성)⁴⁾을 뉘울넉가
 이제야 어딴 스에 이 山(산) 밧기 날오소냐
 許由(허유)⁵⁾의 시늉 귀에 老萊子(노래자)⁶⁾의 오솔 입고
 압피에 저 술이 풀은 쇠 되도록
 鶴髮(학발)을 피시고
 白髮(백발)에 아핀 줄 몰오도록
 함기 피셔 늘그리라

성주 향한 작은 정성 늙어서야 더욱 깊다.
 때때로 머리 들어 북극성을 바라보니
 남모르는 눈물이 두 소매에 다 젖는다.
 이 눈물 보거나 차마 물러나 있을까마는
 가뜩이나 재주 없고 병이나 깊어 가며
 늙으신 어머니는 팔순이 거의 되니
 탕약을 그치며 문안 올리기 그만둘까.
 이제야 어느 사이에 이 산 밖에 나가겠나.
 허유가 씻은 귀에 노래자의 옷을 입고
 앞산의 저 술밭이 푸른 연못 되도록
 늙은 어버이를 모시고
 백발에 누구인지 모르도록
 함께 모셔 늙으리라.

1) 개와 말이 사람을 충성스럽게 섬기듯이 임금님을 섬기고자 하는 작은 정성.

2) 爲政以德 譬如北辰 居其所 而衆星共之(위정以德 비여북신 거기소 이중성공지), 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북극성은 제자리에 있고 모든 별들이 그를 바라보며 따르는 것과 같다. - “논어(論語)”, ‘위정(爲政)편’

3) 원추리 방. 어머니 거처인 내당의 뒤뜰에 원추리를 심었던 것에서 연유.

4) 혼정신성(昏定晨省). 저녁에는 부모님의 잠자리를 보아 드리고, 아침이면 편히 주무셨는가를 문안드리는 일.

5) 요임금이 왕위를 물려주려 하니 받지 않고 귀가 더러워졌다며, 영천(潁川)의 물에 귀를 씻고 기산(箕山)에 들어가 숨어 살았다고 함.

6) 중국 춘추 시대 초(楚)나라의 현인으로 난을 피하여 몽산(蒙山) 남쪽에서 농사를 짓고 살면서, 70세의 나이에도 색동옷을 입고 어린애 장난을 하면서 늙은 부모를 즐겁게 해 주었다고 전해짐.

4. 陋巷詞(누항사, 1611)

公從遊漢陰相公(공종유한음상공)。相公問公山居窮苦之狀(상공문공산거궁고지상)。
公乃述己懷作此曲(공내술기회 작차곡)。

공(작자)이 상공(한음 이덕형)과 교유할 때, 상공이 공에게 산골에서의 궁벽한 생활에 대해 물었다.
이에 공은 심회를 밝히면서 이 곡을 지었다.

어리고 迂闊(우활)홀산 이 너 우히 더니 업다
吉凶 禍福(길흉 화복)을 하늘기 부쳐 두고
陋巷(누항)¹⁾ 집푼 곳의 草幕(초막)을 지어 두고
風朝雨夕(풍조우석)²⁾에 석은 답히 섭히 되야
서 흙 밥 닷 흙 粥(죽)에 煙氣(연기)도 하도 할샤
설 데인 熟冷(숙냉)애 빈 배 석일 뿐이로다
생애 이러하다 丈夫(장부) 뜻을 옮길넌가
安貧一念(안빈 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이셔
隨宜(수의)로 살려 하니 날로조차 齟齬(저어)하다
ㄴ을히 不足(부족)거든 봄이라 有餘(유여)하며
주머니 휘엇거든 瓶(병)이라 담겨시라
貧困(빈곤)흔 人生(인생)이 天地間(천지간)의 나뿐이라

飢寒(기한)이 切身(절신)하다 一丹心(일단심)을 이질논가
奮義忘身(분의 망신)하야
죽어야 말녀 너겨
于橐于囊(우탁 우랑)³⁾의 줍줍이 모아 녀코
兵戈(병과) 五載(오재)에 敢死心(감사심)을 가져 이셔
履尸涉血(이시섭혈)하야 몇 百戰(백전)을 지넌연고
一身(일신)이 餘暇(여가) 잇사 一家(일가)를 도라보라
一奴長鬚(일노장수)는 奴主分(노주분)을 이져거든

어리석고 세상 어둡긴 내 위에 더는 없다.
길흉화복이야 하늘에 맡겨둔 채
누추한 곳 깊은 곳에 초가집 지어놓고
바람불고 비 오는 때 썩은 짚이 섰이 되어
밥 세 그릇, 죽 다섯에 연기만 많고 많다.
덜 데운 송늬으로 빈 배 속일 뿐이로다.
살림살이 이러하다 장부 뜻을 바꿀 건가.
가난해도 편안한 마음 적을망정 지니고서
뜻한 대로 살려 하니 나날이 어렵구나.
가을에도 부족한데 봄이라 넉넉하며
주머니가 비었는데 술병이라 가득할까.
가난한 인생이 이 세상에 나뿐이라.

주림 추위에 괴로워도 일편단심 잊겠는가.
의로움에 분발하여 내 몸을 잊은 후에
죽음을 각오하고
전대와 망태에 한줌 한줌 모아 넣고
전쟁 오 년 동안 감히 죽을 마음으로
주검 밟고 피를 건너 몇 백 싸움 치르었나.
이 몸이 여유 있어 집안을 돌보았을까.
하나 있던 늙은 종은 옛 주인을 버렸는데

1) 공자의 제자 안회(顔回)가 살았던 곳. 공자는 안회의 청빈한 생활을 칭송하였음. 賢哉回也 一簞食 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 不改其樂(현재회야 일단식 일표음 재누항 인불감기우 회야 불개기락), 홀륭하다, 안회여. 대나무 밥그릇과 표주박 물로 누항에 살면서도 그 즐거움은 변치 않았구나. - “논어(論語)”, ‘옹야(雍也)편’

2) 아침에 바람 불고, 저녁에 비가 옵.

3) 전대는 군복에 띠던 남색 띠이고, 망태는 가는 새끼나 노 따위로 엮어 만든 물건을 담아 들거나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그릇.

告余春及(고여춘급)을 어너 사이 생각하리
 耕當問奴(경당문로)인들 놀드려 물물논고
 躬耕稼穡(궁경가색)이 너 分(분)인 줄 알리로다
 莘野耕叟(신야경수)와 隴上耕翁(농상경옹)¹⁾을
 賤(천)타 하리 업것마는
 아므려 갈고전들 어너 쇼로 갈로손고
 旱既太甚(한기태심)하야 時節(시절)이 다 느즌 제
 西疇(서주) 눅흔 논애 잠깐 긴 널비에
 道上(도상) 無源水(무원수)를 반만찬 디혀두고
 쇼 흔 적 듀마 하고 업섬이 하느 말삼
 親切(친절)호라 너긴 집의
 달 업슨 黃昏(황혼)의 허위허위 다라 가서
 구디 다든 門(문) 밧기 어득히 혼자 서서
 큰 기참 아함이를 良久(양구)토록 하온 後(후)에
 어와 기 뉘신고
 廉恥(염치) 업산 너옴노라
 初更(초경)²⁾도 거원디 기 엇지 와 겨신고
 年年(연년)에 이러하기 苟且(구차)흔 줄 알건마는
 쇼 업슨 窮家(궁가)애 혜염 만하 왓삽노라
 공하니나 갑시나 주엄 죽도 하다마는
 다만 어제 밤의 거넌 집 저 사람이
 목 불근 수기 雉(치)을 玉脂泣(옥지읍)³⁾게 쭈어 너고
 간 이근 三亥酒(삼해주)⁴⁾을 醉(취)토록 勸(권)하거든
 이러한 恩惠(은혜)을 어이 아니 갑흘넉고
 來日(내일)로 주마 하고 큰 言約(언약) 하야거든
 失約(실약)이 未便(미편)하니 사설이 어려왜라
 實爲(실위) 그리하면 혈마 어이홀고
 현 먼덕 수기 스고
 축 업슨 집신에 설피설피 물너 오니

봄이 왔다 고할 종을 어찌 생각하리.
 종 없으니 밭 갈 때를 누구에게 물어보리.
 몸소 농사짓기 내 분수 줄 알겠노라.
 들과 밭에서 밭 가는 늙은이가
 천하다 할 리 없지마는
 아무리 갈려 해도 어느 소로 갈 것인가.
 가뭄이 크게 들어 농사 짓기 다 늦은 때
 서쪽 언덕 높은 논에 잠깐 내린 소나기에
 길 위 잠깐 흐르는 물 반이나마 대어두고
 쇼 한 마리 빌려 주마 엉성히 하던 말을
 친절하게 여긴 집에
 달 없는 황혼에 허둥지둥 달려가서
 굳게 닫힌 문 밖에서 아득히 혼자 서서
 큰 기침 에헴에헴 오랫동안 한 뒤에
 지금 누구신가.
 염치없는 저을시다.
 초경도 지났는데 그 어찌 와 계신가.
 해마다 이러하길 구차한 줄 알지마는
 쇼 없는 가난한 집 고민 많아 왔습니다.
 공짜거나 값 받거나 빌려줌 직 하건마는
 다만 어젯밤에 건넌집 저 사람이
 목 붉은 수꿩고기 기름 발라 구워내고
 갓 익은 삼해주를 취하도록 권하거든
 이러한 은혜를 어찌 아니 값을 건가.
 내일 쇼 빌려 주마 큰 언약 하였거든
 약속 어김 불편하니 말하기가 어렵구료.
 사실이 그러하면 이를 어이할까.
 현 갓을 눌러 쓰고,
 축 업는 짚신으로 맥없이 물러나니

1) 신야는 중국 유신국(有莘國)의 들로, 은나라의 이윤(伊尹)이 이곳에서 농사짓다가 탕왕(湯王)의 초빙을 받고 세상에 나가 하(夏)나라 걸왕(桀王)을 추방하고 상(商)나라 왕조를 건립함. 농상경옹은 중국 최초의 농민 반란군의 우두머리로 진(秦)나라에서 난을 일으켰던 진승(陳勝)을 가리킴.

2) 오후 7시~9시.

3) 구슬 같은 땀어 오르는 기름.

4) 정월의 세 해일(亥日)에 만든 술. 음력 정월 상해일에 찹쌀가루로 죽을 쑤어 식힌 다음에 누룩가루와 밀가루를 섞어서 독에 넣고, 중해일에는 찹쌀가루와 땀쌀가루를 찌서 식힌 후에 독에 넣고, 하해일에는 흰쌀을 찌서 식혀서 독에 넣어 익힘.

風採(풍채) 저근 形容(형용)에 기 즈칠 뿐이로다
 蝸室(와실)¹⁾에 드리간들 잠이 와서 누어시라
 北牕(북창)을 비껴 안자 식배를 기다리니
 無情(무정)한 대승(戴勝)은 이너 恨(한)을 도우느다
 終朝惆悵(종조 추창)하야 먼 들흘 바라보니
 즐거운 농부가도 흥(흥) 업서 들리느다
 世情(세정)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느다
 아까운 저 소취²⁾는 벗보님³⁾도 도호세고
 가시 영긴 묵은 밧도 容易(용이)케 갈련마는
 虛堂半壁(허당반벽)에 슬디업시 걸려고야
 春耕(춘경)도 거의거다 후리쳐 더더 두자

江湖(강호) 흥 꿈을 꾸언지도 오리러니
 口腹(구복)이 爲累(위루)하야 어지버 이저저다
 瞻彼淇澳(첨피기옥)⁴⁾ 혼디 녹죽(綠竹)도 하도 할샤
 有斐君子(유비군자)⁵⁾들아 낙디 하나 빌려스라
 蘆花(노화) 김핀 곳에 明月淸風(명월청풍) 벗이 되야
 넘지 업산 風月江山(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늘그리라
 無心(무심)한 白鷗(백구)야 오라 하며 말라 하라
 다토리 업슬손 다문 인가 너기로라
 無狀(무상)한 이 몸애 무슨 志趣(지취) 이스리마는
 두세 이렇 밧논를 다 무겨 더더 두고
 이시면 粥(죽)이오 업시면 굴물망정
 남의 집 남의 거슨 전혀 부러 말렸스라
 너 貧賤(빈천) 슬히 너겨 손을 헤다 물너가며
 남의 富貴(부귀)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아 오라
 人間(인간) 어너 일이 命(명) 밧기 삼겨시리
 貧而無怨(빈이무원)을 어렵다 흥건마는
 너 生涯(생애) 이러호디 설운 뜻은 업노왜라
 簞食瓢飲(단사표음)을 이도 足(족)히 너기로라

볼품없는 내 모습에 개만 짓을 뿐이구나.
 작은 집에 돌아온들 잠이 와서 누었으랴.
 북쪽 창에 비껴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심한 새 한 마리 이내 한을 돌구누나.
 아침이 지나도록 먼 들을 바라보니
 즐거운 농부가도 흥이 없이 들리는데
 세상 물정 모르는 한숨 그치지 않는구나.
 아까운 저 쟁기는 벗의 밧도 좋을시고.
 가시 영긴 거친 밧도 쉽게 갈겠지만
 텅빈 집 빈 벽 위에 쓸데없이 걸렸구나.
 봄갈이도 끝났구나, 팽개쳐 던져두자.

강산을 벗 삼기를 꿈꾼 지 오래지만
 먹는 일이 당장 급해 어즈버 잊었구나.
 기수의 물가 보니 푸른 대도 많을시고.
 훌륭한 군자들이 낚시하나 빌려다오.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무심한 갈매기가 오라 하며, 말라 하라.
 다들 이 없는 것은 다만 강산인가 하노라.
 볼품없는 이 내 몸이 무슨 뜻이 있겠나만
 두어 이랑 논밭을 다 묵혀 던져두고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을 전혀 부러 앓겠노라.
 내 가난함 슬피 여겨 손님을 쫓아내며
 남 부귀 부럽다고 날 부른다 찾아가리.
 인간의 어느 일이 운명밖에 생겼을까.
 가난해도 원망 안함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내 생애 이러해도 설운 뜻은 전혀 없다.
 표주박 작은 밥도 넉넉히 여기노라.

1) 달팽이 껍질같이 좁은 방.

2) 밭 가는 기구의 하나.

3) 벗을 의인화하여 높여 부르는 말. 벗은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췌조각으로 보습으로 갈아 넘기는 흙을 받아 한쪽으로 떨어지게 함.

4) 저 기수의 물가를 바라봄. 기옥은 기수(淇水)의 벼랑을 말하는데, 대나무가 잘 자라는 곳이었다고 함.

5) 문채(文彩)가 나는 군자라는 뜻으로, 학식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이르는 말.

平生(평생) 흔 뜻이 溫飽(온포)애는 업노왜라
太平天下(태평천하)애 忠孝(충효)를 일을 삼아
和兄弟(화형제) 信朋友(신붕우)
외다 헝리 뉘 이시리
그 밧기 남은 일이야 삼긴 디로 살렷노라

평생 뜻이 배부르고 따뜻한 게 아니기에
태평천하에 충효로 일을 삼고
형제간에 화목하고 벗들과 신의 있음이
그릇되다 할 이 뉘 있으리.
그 밖의 남은 일이야 생긴 대로 살겠노라.

5. 獨樂堂(독락당, 1613)

在慶州玉山(재경주옥산)。卽晦齋李先生所居堂也(즉회재이선생소거당야)。
公往尋遺躅(공왕심유축)。因作此歌(인작차가)。

경주 옥산에 있다. 회재 이선생(이언적)¹⁾이 지내던 글방이 있다.
공(작자)이 그곳을 찾아가서 이 노래를 지었다.

(고딕체는 독락당 근처의 건물명이거나 근처에 있는 지명)

紫玉山(자옥산)²⁾ 名勝地(명승지)에
獨樂堂(독락당)이 蕭灑(소려)함을 들린 디 오래로되
이 몸이 武夫(무부)로서 海邊事(해변사)³⁾ | 孔棘(공극)거늘
一片丹心(일편단심)에 奮義(분의)를 못내 ㅎ야
金鎗鐵馬(금창철마)⁴⁾로 餘暇(여가) 업시 奔走(분주)터가
中心景仰(중심경앙)⁵⁾이 白首(백수)에 더욱 깊혀
竹杖芒鞋(죽장망혜)로 오날사 츠자 오니
峯巒(봉만)은 秀麗(수려)ㅎ야 武夷山(무이산)⁶⁾이 되어 잇고
流水(유수)는 盤回(반회)ㅎ야 後伊川(후이천)⁷⁾이 되엿느다
이러흔 名區(명구)에 임지 어이 업도편고

一千年(일천년) 新羅(신라)와 五百載(오백재) 高麗(고려)에
賢人(현인) 君子(군자)들이 만히도 지닌 마는
천간지비(天慳地秘)ㅎ야
我先生(아선생)⁸⁾씨 기치도다
物各有主(물각여주) | 어든
드토리 이실소냐

자옥산 명승지에
독락당이 깨끗함을 들은 지 오래로되,
이 몸이 무인으로 바다 일이 급박하여
일편단심 분한 마음 못내 떨치어 내
무기 들고 여가 없이 분주하게 지내다가
마음속에 사모함이 흰 머리에 더욱 깊어
대지팡이에 짚신 신고 오늘에야 찾아오니
산봉우리 수려하여 무이산이 되어 잇고
물은 휘돌아서 후이천이 되었구나.
이러한 명승지에 임자 어이 없었던가.

일천 년 신라와 오백 년 고려에
현인 군자들이 많이도 왔지만은
하늘이 아끼고 땅이 감추어
내 선생을 남기었다.
사물은 저마다 주인이 있다 한들
다들 이 있을 소냐.

1) 이언적(李彦迪). 조선 중기 중종 때의 문신이자 유학자.

2) 현재 경주에 있는 산 이름.

3) 바다의 일, 여기서는 작가가 수군(水軍)에 복무할 때를 일컬음.

4) 금으로 된 창과 쇠로 된 말, 곧 좋은 무기.

5) 마음속으로 (이언적을) 깊이 사모함.

6) 중국 송나라 유학자 주희(朱熹)가 살았던 산.

7) 중국 송나라 학자 정이(程頤)가 살던 곳이 이천이었기에, 조선의 이언적이 살았던 이천을 후이천이라 함.

8) 이언적을 가리킴.

靑蘿(청라)를 헤쳐드러 獨樂堂(독락당)을 여러넢니
 幽閑(유한) 景致(경치)는 견훤디 너야 업넢
 千竿脩竹(천간수죽)은 碧溪(벽계)조차 둘러잇고
 萬卷書冊(만권서책)은 四壁(사벽)의 사혀시니
 顏曾(안증)이 在左(재좌)호고 游夏(유하)는 在右(재우)호듯¹⁾
 尙友千古(상우천고)²⁾호며 吟詠(음영)을 일을 삼아
 閒中靜裏(한중정리)에 潛思自得(잠사자득)호야
 혼자 즐겨 호시덧다
 獨樂(독락) 이 일홈 稱情(칭정)호 줄 그 뉘 알리
 司馬溫公(사마온공) 獨樂園(독락원)³⁾이 아무려 조타 혼들
 其間眞樂(기간진락)이야 이 獨樂(독락)에 더로손가

尋眞(심진)을 못넢 호야 養眞菴(양진암)⁴⁾의 도라 드러
 臨風靜看(임풍정간)호니 너 뜻도 瑩然(형연)호다
 退溪先生(퇴계선생) 手筆(수필)이 眞得(진득)인 줄 알 리로다
 觀魚臺(관어대)⁵⁾ 내려오니 짚은 덧호 盤石(반석)의
 杖履痕(장구흔)이 보이느닷
 手栽長松(수재장송)은 넷빗줄 띄여시니
 依然物色(의연물색)이 그 더욱 반가올사
 神清氣爽(신청기상)호야 芝蘭室(지란실)⁶⁾에 든 덧호다
 多少古跡(다소고적)을 보며 문득 싱각호니
 層巖絶壁(층암절벽)은 雲母屏(운모병)이 절로 되야
 龍眠妙手(용면묘수)⁷⁾로 그린덧시 버러 잇고
 百尺澄潭(백척징담)에 天光雲影(천광운영)이
 얼희여 줌겨시니
 光風霽月(광풍제월)이 부는 듯 보시는 듯
 鳶飛魚躍(연비어약)을 말업슨 벗을 삼아
 沈潛翫索(침잠완색)⁸⁾호야 聖賢事業(성현사업)⁹⁾ 호시덧다

푸른 덩굴 헤쳐 들어 독락당을 열어 내니
 그윽한 경치는 견줄 데 전혀 없네.
 무성한 대숲은 벽계 좇아 둘러 있고
 만권 서책은 네 벽에 쌓였으니
 안증은 좌에 있고 유하는 우에 있는 듯
 경전을 숭상하여 독서로 일을 삼아
 한가하고 고요한 데 깊이 생각하시기를
 혼자 즐겨 하시었다
 독락 이 이름이 뜻에 맞은 줄 그 뉘 알리.
 사마온공 독락원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 때의 즐거움이 이 독락보다 더할 손가.

신선이 못내 되어 양진암에 돌아들어
 고요히 경치 보는 내 뜻도 아름답다.
 퇴계 선생 남긴 글이 진리임을 알 리로다.
 관어대 내려오니 깔린 듯한 너럭바위에
 선생의 지팡이와 신발자국 보이는 듯
 손수 심은 소나무는 옛 빛을 띠었으니
 옛 그대로 물색이 그 더욱 반갑구나.
 마음이 시원하여 향기로운 방에 든 듯.
 많고 적은 옛 자취를 보며 문득 생각하니
 층암 절벽은 운모 병풍 절로 되어
 용면의 솜씨인 듯 그린 듯이 펼쳐 있고
 백 길의 깊은 못에 하늘의 구름 그림자
 어리어 잠겼으니
 비 갠 뒤에 바람 불고 달빛이 비추는 듯
 나는 술개 뛰는 고기 말 없는 벗을 삼아
 정성스레 책을 읽어 성현 사업 본받도다.

1) 안증은 공자의 제자인 안회(顔回)와 증삼(曾參)이고, 유하는 자유(子由)와 자하(子夏).

2) 천 년 전의 옛 벗을 숭상함, 여기서 옛 벗은 유학 경전.

3) 사마온공은 중국 북송의 재상이었던 사마광(司馬光)이며 독락원은 사마광이 만든 정원.

4) 이언적이 후학을 가르치던 집채 이름.

5) 물고기를 구경할 수 있는 높은 언덕.

6) 향기로운 지초와 난초가 자라는 땅, 곧 선량한 사람들이 기거하는 곳.

7) 중국 송나라의 사대부 화가였던 용면거사 이공린(李公麟)의 뛰어난 그림 솜씨.

8) 마음을 가라앉혀 얻고자 하는 것을 찾음. 곧 정성을 다하여 책을 읽음.

9) 성현이 하던 일. 곧 학문에 힘쓰며 도덕적으로 살던 일.

淸溪(청계)를 빗기 건너 釣磯(조기)도 宛然(완연)홀사
문노라 白鷗(백구)들아 네 닐을 아노산다
嚴子陵(엄자릉)¹⁾이 어니 희에 漢室(한실)²⁾로 가단 말고
苔深磯上(태심기상)애 暮煙(묘연)만 잠겨서라

春服(춘복)을 식로 입고 詠歸臺(영귀대)³⁾에 올라오니
麗景(여경)은 古今(고금) 업서 淸興(청흥)이 절로 하니
風乎詠而歸(풍호영이귀)⁴⁾를 오늘 다시 본 듯하다
臺下蓮塘(대하연당)의
細雨(세우) 잠썩 지너지니
碧玉(벽옥)긋흔 너분 님헤 흐치느니 明珠(명주)로다
이러흔 淸景(청경)을 보암 족도 헛다마는
濂溪(염계)⁵⁾ 가신 後(후)에 몇몇히를 디닌 게오
依舊淸香(의구청향)이 다몬 혼자 남아고야
紫煙(자연)이 빗긴 아래 瀑布(폭포)를 멀리보니
丹崖(단애) 노퍽 굿히 긴 너히 걸려는듯
香爐峯(향로봉)⁶⁾ 그 어디오 廬山(여산)⁷⁾이 예롯딘가
澄心臺(징심대)⁸⁾ 구어보니 鄙吝(비린)뎃 胸襟(흉금)이
새로운 듯헛다마는
寂莫空臺(적막공대)에 외로이 안자시니
風淸鏡面(풍청경면)의 山影(산영)만 잠겨잇고
綠樹陰中(녹수음중)에 윈갓시 슬피운다
徘徊思憶(배회사억)헛며 眞跡(진적)을 다 차즈니
濯纓臺(탁영대)⁹⁾ 淵泉(연천)은 古今(고금)업시 말다마는
末路紅塵(말로풍진)에 사름마다 紛競(분경)커든
이리 조흔 淸潭(청담)애 濯纓(탁영)홀 줄 그 뉘 알리

맑을 물을 비껴 건너니 낚시터도 뚜렷한데
문노라 갈매기야, 옛일을 알고 있나.
엄자릉이 어느 해에 한실로 갔단 말인가.
이끼 낀 모래톱에 저녁 안개 잠겼어라.

봄옷을 새로 입고 영귀대에 올라오니
고운 경치 고금 없어 맑은 흥이 절로 이니
바람 쐬고 시 읊기를 오늘 다시 본 듯하다.
언덕 아래의 연꽃 핀 연못으로
가랑비 잠깐 지나가니
푸른 옥 넓은 앞에 흠어지니 구슬이라.
이러한 경치를 본 족도 하다마는
염계 가신 후에 몇몇 해를 지낸 게오.
옛 그대로 맑은 향기만 다만 혼자 남았구나.
보라 안개 비긴 아래 폭포를 멀리 보니
붉은 바위 높은 끝에 긴 내가 걸렸는 듯
향로봉이 어디인가, 여산이 여기인가.
징심대 굽어보니 더럽혀진 가슴 속이
새로운 듯하지만
적막한 언덕 위에 외로이 앉았으니
바람 잦은 물결 위로 산 그림자 잠겨 있고
짙은 나무 그늘 찾아 온갓 새 슬피 운다.
거닐면서 생각하며 옛 자취를 다 찾으니
탁영대 깊은 못은 옛날처럼 맑다마는
어지러운 티끌 속에 사름마다 다투거니
이리 맑은 못에 갓 씻을 줄 그 뉘 알리.

1) 중국 후한 때 은사(隱士)였던 엄광(嚴光). 광무제 유수(劉秀)의 절친한 친구였는데, 유수가 군사를 일으키자 그를 도와 황제에 즉위시켰으나, 벼슬길로 나가지 않고 이름을 바꾸고 부춘산에 은거함.

2) 중국 한나라 왕실.

3) 시문을 즐겨 외우던 언덕.

4) 바람을 쐬고 시를 읊고 돌아오던 일.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욕호기 풍호무우 영이귀),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에서 바람 쐬고 노래하면서 돌아온다.” - “논어(論語)”, ‘선진(先進)’편.

5) 중국 북송의 유학자인 주돈이(周敦頤)의 호.

6) 금강산의 제일봉.

7) 중국 장시(江西省)에 있는 명산.

8) 마음을 맑게 하는 언덕.

9) 갓끈을 씻는 물가 언덕. 탁영은 갓끈을 씻는다는 의미로 속세를 초월하여 사는 삶을 의미함.

獅子巖(사자암) 노피 올라 道德山(도덕산)을 바라보니
 玉蘊含輝(옥온함휘)¹⁾는 어제론 덧흐다마는
 鳳去山空(봉거산공)²⁾하니 杜鵑(두견)만 나죄운다
 桃花洞(도화동) 느린 물리
 不舍晝夜(불사주야)하야 落花(낙화)조차 흘러오니
 天台(천태)³⁾인가 武陵(무릉)인가 이 싸히 어딘게오
 仙蹤(선종)⁴⁾이 아득하니 아모된 줄 모르로다
 仁者(인자)도 아닌 몸이 무슨 理(이)를 알리마는
 樂山忘歸(요산망귀)하야
 奇巖(기암)을 다시 비겨
 川原遠近(천원원근)에 景致(경치)를 살펴보니
 萬紫千紅(만자천홍)은 비단 빛치 되어 있고
 衆卉群芳(중훼군방)은 谷風(곡풍)에 놀러오고
 山寺鍾聲(산사종성)은 구름 밖기 들리누다
 이러흔 形勝(형승)을 范希文(범희문)⁵⁾의 文筆(문필)인들
 다 서넉기 쉬울런가
 滿眼風景(만안풍경)이 客興(객흥)을 도오노듯
 任意逍遙(임의소요)하며 짐즉 더디 도라오니
 舉目西岑(거목서잠)의 夕陽(석양)이 거의로다

獨樂堂(독락당) 고쳐 올라 左右(좌우)를 살펴보니
 先生(선생)⁶⁾ 風彩(풍채)을 親(친)히 만나 뵈옵는듯
 羹牆(갱장)의 儼然(엄연)하야
 俯仰歎息(부양탄식)하며
 當時(당시)에 하시던 일 다시곰 思想(사상)하니
 明窓靜几(명창정계)에
 世慮(세려)을 이즈시고
 聖賢書(성현서)의 着意(착의)하야 功效(공효)를 일위니여
 繼往開來(계왕개래)⁷⁾하야

사자암 높이 올라 도덕산을 바라보니
 구슬에 쌓인 빛은 어제인 듯 하다마는
 봉황 떠난 빈 산중에 두견만 낮에 운다.
 도화동 흐른 물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낙화조차 흘러오니
 천태인가 무릉인가, 이 땅이 어딘 게오.
 신선 자취 아득하니 아무덴 줄 모를레라.
 어질지도 않은 몸이 무슨 이치 알 리마는
 산이 좋아 다시금 돌아갈 줄 모르더니
 기이한 바위에 기대어 의지하여
 멀고 가까운 시내와 들판을 살펴보니
 아름다운 여러 꽃은 비단 빛이 되어 있고
 수많은 꽃향기는 계곡 바람에 날려 오고
 산사의 종소리는 구름 밖에 들리누나.
 이러한 풍경을 범희문의 문필인들
 다 써내기 쉬울런가.
 눈 가득한 풍경이 객흥을 돋우는 듯
 정처 없이 거닐다가 짐짓 더디 돌아오다
 눈을 들어 서쪽 보니 석양이 거의로다.

독락당 다시 올라 좌우를 살펴보니
 선생의 풍채를 친히 만나 뵈옵는 듯
 자나 깨나 의젓한 언행으로
 하늘을 우러르며 땅을 보며 탄식하시던
 당시에 하시던 일 다시금 생각하니
 밝은 창 아래 고요한 책상에서
 세상 근심 잊으시고
 성현의 책에 뜻을 두고 공부를 이뤄내어
 옛 성현을 계승하여 후학을 이끄시어

1) 구슬에 쌓였으나 맑은 빛을 품고 있음. 이연적의 학덕.

2) 봉황이 날아가 산이 비어 있음. 곧 이연적의 죽음을 뜻함.

3) 중국 저장(浙江)의 명산.

4) 신선들이 놀던 자취.

5) 중국 송나라 문필가인 범중엄(范仲淹)의 자. 중국 북송 때의 정치가·학자로 악양루기(岳陽樓記)를 씀.

6) 이연적.

7) 繼往聖開來學(계왕성개내학). 지나간 성인을 계승하여 다가오는 후학의 길을 열어줌.

吾道(오도)를 발키시니
 吾東方 樂只君子(오동방 낙지군자)는
 다몬 인가 너기로라
 하물며 孝悌(효제)¹⁾를 本(본)을 삼고
 忠誠(충성)을 뱃허니여
 聖朝(성조)의 나아 들러 稷契(직설)²⁾의 몸이 되어
 唐虞盛時(당우성시)를 일월가 바라더가
 時運(시운)이 不幸(불행)하야 忠賢(충현)³⁾을 遠斥(원척)하니
 듯느니 보느니 深山窮谷(심산궁곡)엔들
 뉘 아니 悲感(비감)하리
 七年長沙(칠년장사)⁴⁾이 不見天日(불견천일)하고
 閉門深省(폐문심성)하샤 道德(도덕)만 닦그시니
 邪不勝正(사불승정)이라
 公論(공론)이 절로 이러
 尊崇道德(존숭도덕)을 사람마다 할 줄 아라
 江界(강계)는 謫所(적소)⁵⁾로되 遺化(유화)를 못느 이저
 窮巷絕域(궁항절역)⁶⁾의 祠宇(사우)쫓차 서워시니
 士林趨仰(사림추양)이야 더욱 닐러 무엇하리

紫玉泉石(자옥천석)우회 書院(서원)을 디어두고
 濟濟青襟(제제청금)이
 絃誦聲(현송성)을 이어시니
 濂洛群賢(염락군현)⁷⁾이 이 사회 되왓는닷
 求仁堂(구인당) 도라 올라 體仁廟(체인묘)⁸⁾도 嚴肅(엄숙)하샤
 千秋血食(천추혈식)⁹⁾이 偶然(우연) 아닌 일이로다
 追崇尊敬(추송존경)을
 할수록 못느 하야

1)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간의 우애.

2) 설(契)과 后稷(후직). 후직은 중국 요임금 때 농사(農師)라는 직책을 맡았고, 설은 교육의 책임자인 사도(司徒)가 됨. 곧 나라의 중요한 신하.

3) 충성스럽고 현명한 신하. 여기서는 이언적을 가리킴.

4) 중국 한나라 충신 가의(賈誼)가 곧은 말을 했다가 장사 땅에서 7년간 귀양을 했다는 고사.

5) 이언적의 귀양지였던 평안도 강계.

6) 귀양지 평안도 강계

7) 중국 송나라의 유학자 주돈이가 제자들을 가르치던 염계(濂溪)와, 송나라의 정명도(程明道) 정이천(程伊川)의 두 형제가 후학들을 길러내던 낙양(洛陽).

8) 구인당, 체인묘 모두 옥산서원의 집채.

9) 영원히 끊이지 않고 지내는 춘추 제향. 제향은 공자에 제사를 지내는 일.

우리 도를 밝히셨으니
 우리나라 훌륭한 군자들은
 다만 여기에서 나왔는가 하리로다.
 하물며 효제를 본을 삼고
 충성심을 베풀어 내
 조정에 나아가서 직설의 몸이 되어
 요순의 태평 시대 이룰까 바라더니
 시운이 불행하여 충현이 쫓겨나니
 듣는 이 보는 이 깊은 산 골짜기인들
 뉘 아니 슬퍼하리.
 칠년 귀양에 밝은 하늘 보지 못할 지라.
 문 닫고 돌아보아 도덕만 닦으시니
 그림이 옳음을 이기지 못하여
 선생을 칭송하는 의견이 절로 일었구나.
 도덕을 숭상하기 사람마다 할 줄 알아
 강계는 적소로되 남긴 교화 못내 잊어
 궁벽한 시골에도 사당을 세웠으니
 선비들의 추앙이야 더욱 일러 무엇하리.

자옥산 풍경 위에 서원을 지어 두고
 재주 많은 선비들이
 거문고 소리 글 읽는 소리 이어가니
 많은 어진 선비들이 이 땅에 모였는 듯
 구인당 돌아올라 체인묘도 엄숙할 사
 심 없는 제향도 우연이 아닌 일이로다.
 세월이 흘러가도 우러러 모심을
 할수록 못내 하여

文廟從享(문묘종향)¹⁾이 그 더욱 盛事(성사)로다

吾東方(오동방) 文憲(문헌)²⁾이
漢唐宋(한당송) 중국에 비기로되
紫陽雲谷(자양운곡)³⁾도 어즈버 여기로다
洗心臺(세심대) 느린 물에 德澤(덕택)이 이어 흘러
龍湫(용추)⁴⁾ 감혼 곳에 神物(신물)조차 잠겨시니
天工造化(천공조화) | 그 더욱 奇異(기이)코야
無邊眞景(무변진경)을 다 찾기 어려울식
樂而忘返(낙이망반)⁵⁾하야 旬月(순월)을
淹留(엄유)하며
固陋(고루)한 이 몸애 誠敬(성경)을 넓이하야
先生文集(선생문집)을 仔細(자세)히 살펴보니
千言萬語(천어만언) 다 聖賢(성현)의 말삼이라
道脉工程(도맥공정)⁶⁾이 日月(일월)갓치 불가시니
어두운 밤 길히 明燭(명촉)잡고 연뎃하
진실로 이 遺訓(유훈)을 腔子裏(강자리)⁷⁾에 가득 담아
誠意正心(성의정심)하야
修誠(수성)을 넓게 하면
言忠行篤(언충행독)하야
사람마다 어질로다
先生遺化至極(선생유화지극)함이 엇더하뇨
嗟哉(차재) 後生(후생)들아 趨仰(추앙)을 더욱 높혀
萬世千秋(만세천추)에 山斗(산두)갓치 바리사라
天高地厚(천고지후)도 有時盡(유시진)하려니와
獨樂堂淸風(독락당청풍)은 가업실가 하노라

문묘에 제향함이 그 더욱 성대하다.

우리 조선 문화가
한당송 중국에 비기로다.
자양 운곡도 어즈버 여기로다
세심대 내린 물이 덕택으로 이어 흘러
용추 깊은 곳에 용조차 잠겼으니
조물주의 조화가 그 더욱 기이하다.
끝없는 경치를 다 찾기 어려울 새
즐기느라 돌아옴을 한 달 거웃 잊어버려
오래도록 머무르니
고루한 이 몸이 정성과 공경으로
선생의 문집을 자세히 살펴보니
천만 글이 모두가 다 성현의 말씀이라,
공부하는 과정이 일월같이 밝았으니
어두운 밤길에 촛불 잡고 간 듯하다,
진실로 남기신 뜻 강자리에 가득 담아
정성스럽게 마음을 곤게 하고
뜻을 옳게 닦아두면
진실 되게 말을 하고 몸가짐이 두텁게 되어
사람마다 어질도다.
선생의 가르침이 지극함이 어떠하뇨.
아아, 후생들아 추앙을 더욱 높여
천년 만년 태산과 북두 같이 바라보라.
높은 하늘 두터운 땅 다할 때가 있으려니와
독락당 맑은 기운 끝없을까 하노라.

1) 공자를 모신 신위에 제향함.

2) 여기서서는 문화의 의미.

3) 송나라 주희가 머물러 공부하던 곳.

4) 용이 잠긴 듯한 연못.

5) 즐기느라 돌아가기를 잊음.

6) 유학의 연원과 공부의 과정.

7) 원래의 의미는 뱃속이나 여기서서는 마음속.

6. 小有亭歌(소유정가, 1617)

작자가 대구의 소유정(小有亭)에 머물 때, 소유정의 주인인 채선길(蔡先吉)의 청으로 부른 가사. 하지만 박인로의 작품이 아니라 다른 이가 작자의 '사제곡' 등의 다른 가사를 본받아 지었다는 설도 있음.

(고딕체는 소유정 근처에 있는 지명)

琴湖江(금호강) 느린 물이 十里(십리) 밖의 구비지어
 之玄(지현)¹⁾ 乙字(을자)로 白沙(백사)의 빗끼 흘러
 天丈 絶壁下(천장 절벽하)의 萬族淵數(만족연수)²⁾ 되얏거든
 琵琶山(비슬산) 흔 활기 東(동)다히로 버더 내려
 가던 龍(용)이 어머는 듯 江頭(강두)에 두렷거늘
 小有亭(소유정) 두세 間(간)을 바회 지켜 여러 내니
 蓬萊(봉래)³⁾ 仙閣(선각)을 새로 옮겨 내어온 듯
 龍眠妙手(용면 묘수)⁴⁾인들 이곳치 그릴런가
 岳陽樓(악양루)⁵⁾의 비천 들이 흔 비츠로 불가시니
 其兄其弟(기형기제) 아미건 줄 모르노라⁶⁾
 滕子京(등자경)⁷⁾ 사라던 들 必然(필연) 흔번 드톨러차
 엇그제 이 勝地(승지) 님의 손덕 앗겼더니⁸⁾
 天運(천운)이 循環(순환)하야 舊主(구주)에 도라오니
 山河(산하)는 依舊(의구)하고 景物(경물)이 새로왔자
 鏡面 鷗鷺(경면 구노)는
 繼世逢(계세봉)이 되얏고야

어리고 拙(졸)흔 거시 브슴 志趣(지취) 이시리마는
 地靈(지령)이 그러흔 지 天性(천성)이 님과 달라
 一釣竿(일조간) 맞썬 萬事(만사)의 쓰지 업서

금호강 흐른 물이 십 리 밖에 구비 되어
 꾸불거리며 을 자로 모래밭에 비껴 흘러
 천 길 절벽 아래 못 물고기 모이듯이
 비슬산 한 줄기 동쪽으로 뻗어 있어
 가던 용이 머무는 듯 강나루에 둘렀거늘
 소유정 두세 칸을 바위 기대어 열어 내니
 봉래산 선각을 새로 옮겨 내어온 듯
 용면의 솜씨인들 이같이 그릴런가.
 악양루 비천 달과 같은 빛으로 밝았으니
 님 형인지 님 아우인지 아무도 모르노라.
 등자경이 살았던들 필연 한번 님을 만났으리.
 엇그제 이 경치를 님의 손에 빼앗기더니
 천운이 다시 바뀌어 옛 주인에 돌아오니
 산하는 옛 그대로이고 경치는 새로웠다.
 물 위를 날아가는 갈매기와 해오라기
 계세봉이 되었구나.

어리석고 못난 것이 무슨 뜻이 있으리마는
 땅 신령 때문인지 천성이 님과 달라
 낚싯대 하나 밖엔 다른 일에 뜻이 없어

1) 풍수지리에서 용(龍)이 입수(入首)하려는 데서 꾸불거리는 현상.
 2) 못에 물고기가 모여들고 숲에 새와 짐승이 모여드는 것처럼 여러 사물이나 사람이 모임.
 3) 중국 전설에서 나타나는 삼신산(三神山)의 하나로 신선이 살고 불로초와 불사약이 있다고 함.
 4) 중국 송나라의 사대부 화가였던 용면(龍眠) 이공린(李公麟)의 뛰어난 그림 솜씨.
 5) 중국 호남성에 있는 성루.
 6) 소유정의 아름다움이 악양루보다 못하지 않다는 의미.
 7) 범중엄(范仲淹)의 친구로 악양루를 중수하였음.
 8) 왜란 당시의 왜군에게 빼앗김.

花朝 月夕(화조월석)의 吟詠(음영)을 일을 삼아
 滿目(만목) 湖山(호산)의 景致(경치)를 살펴보니
 千態萬象(천태만상)이야 아마도 만타마는
 范希文(범희문)¹⁾ 업거든 뉘라셔 다 뜰런고
 뜰 이도 업스니 혼자 볼 뿐이로다
 午酒(오주)이 初醒(초성)커를 낮대를 두러메고
 任意(임의) 逍遙(소요)하야 釣臺(조대)에 건너오니
 山雨(산우)는 잠간 개고 太陽(태양)이 썩오논디
 江風(강풍)이 더디오니 鏡面(경면)이 더욱 맑아
 洛水 伊川(낙수 이천)²⁾인들 이곳치 물글런가
 깎은 돌이 다 보이니 고기 數(수)를 알리로다
 고기도 낚치 니거 나를 보고 반기는가
 놀낼 주를 모르거든 참아 어이 낚쓸소니
 罷釣(파조) 臨淵(임연)의 魚共樂(어공락)³⁾이 버지 되야
 雲影 川光(운영 천광)⁴⁾이 어리어 썩러지니
 於刃 魚躍을(어인어약)⁵⁾
 구름 속애 보아괴야
 一般 清意(일반 청의)⁶⁾를 놀더려 議論(의논)홀고
 말업슨 孤鶩(고목)이 落霞(낙하) 齊飛(제비)⁷⁾ 뿐이로다
 하물며 八公山(팔공산) 건너보니 노프락 느즈락
 峭壁(초벽) 鑽峯(찬봉)이 날 위하야 버러는 듯
 넓거든 기지 마나 길거든 넓지 마나
 白練(백련) 萬丈(만장)을 굵긋치 채뽏는 듯
 富春(부춘)⁸⁾ 形勝(형승)인들 이 江山(강산)의 밋출런가
 山回 水曲(산회 수곡)이 견훤 디 너야 업다
 各別(각별)한 仙界(선계)라 人間(인간)이 아닌 듯싸
 古往 今來(고왕 금래)에 英雄豪傑(영웅호걸)이 만히도 지낸마는

아침 꽃과 저녁달에 시 읊기를 일을 삼아
 눈 가득 호산의 경치를 살펴보니
 천만 가지 모습이야 아마도 많다마는
 범희문 없는데 뉘라셔 다 쓸 것인가.
 뜰 이도 없으니 혼자 볼 뿐이로다.
 낮술에서 막 깨어나서 낚싯대를 둘러메고
 마음대로 거닐면서 낚시터로 건너오니
 산비는 잠간 개어 햇볕을 내리쬐는데
 강바람이 더디오니 수면이 더욱 맑다.
 낙수 이천인들 이같이 맑을런가.
 깊은 돌이 다 보이니 고기 수를 알리로다.
 고기도 낚치 익어 나를 보고 반기는가.
 놀랄 줄을 모르거든 차마 어이 낚을 손가.
 낚시 마치고 물가 앉아 물고기와 벗이 되어
 구름 그림자 하늘빛이 어리어 떨어지니
 물고기 뛰어오르고 솔개가 날아감을
 구름 속에서 보는구나.
 이 청아한 즐거움을 누구와 의논할까.
 말 없는 오리 하나 노을에 날 뿐이로다.
 하물며 팔공산 건너보니 높은 듯 낮은 듯
 벼랑에 꿇긴 찬봉이 날 위하여 벌렸는 듯
 넓거든 길지 말지 길거든 넓지 말지
 흰 명주 만 길이나 끝끝마다 펼쳤는 듯
 부춘의 풍경인들 이 강산에 미칠런가.
 산을 돌아 물이 굽어 견줄 데 전혀 없다.
 각별한 신선 세계 인간 세상 아닌 듯해
 예로부터 지금까지 영웅호걸 많았지만

1) 중국 송나라 문필가인 범중엄(范仲淹). 악양루기(岳陽樓記)를 씀.

2) 낙수는 중국 하남성에 있는 황하의 지류이며, 이천은 낙수의 지류로, 송나라의 유학자 정이(程頤)가 학업을 닦던 곳.

3) 물고기와 함께 하는 즐거움.

4) 天光인 듯.

5) 魚躍于淵인 듯.

6) 月到天心處 風來水面時 一般清意味 料得少人知 (월도천심처 풍래수면시 일반청의미 요득소인지), 달이 중천에 떠 있고, 바람이 수면에 일 때, 이렇게 청아한 뜻을, 아는 이 적음을 알았노라. - 소옹(邵雍), '청야음(淸夜吟)'

7) 노을 속에 가지런히 날아감.

8) 중국 후한 광무제의 옛 친구였던 엄자릉(嚴子陵)이 숨어 살던 곳.

天慳 地秘(천간 지비)하야
 나를 주랴 남과덧싸
 득토리 업스니 나만 두고 즐기로다
 仁者樂山(인자요산)과 知者樂水(지자요수)를
 엇지 닐은 말슴인고
 無狀(무상)흔 이 몸이 仁智(인지)를 알라마는
 山水(산수)에 癖(벽)¹⁾이 지니 늘글소록 더어간다
 저 귀흔 三公(삼공)과 이 江山(강산)을 밋쓸소냐
 이려고 미친 마음 우으리 만타마는
 아무리 우어도 나는 죠히 녀기노라
 爰居 爰處(원거원처)²⁾하다 恒産(항산)인들 얼머치리
 野老(야노) 生涯(생애)를 만타야 홀가마는
 追遠(추원) 奉祭祀(봉제사)나 誠敬(성경)으로 닐원 後(후)의
 이시면 粥(죽)이오 업스면 굴믈만정
 그 밋씨 남안 일을 저그나 불알소냐

無思 無慮(무사 무려)하야 이 江山(강산)의 누어시니
 뉘라셔 世上(세상) 일은 듯도 보도 못하로다
 花開葉落(화개엽락) 아니면
 어너 節(절)을 알리런고
 梅窓(매창)의 곱피거늘 새 봄을 貴景(귀경)하랴
 靑藜杖(청려장) 빗끼 쥐고 童子(동자)를 불러내여
 압서쌔락 뒤쌔락 五五 三三(오오 삼삼)이
 李杜詩(이두시)³⁾를 섯거 읊고 습닙 난 잔되에
 足容重(족용중)⁴⁾케 훗거러 淸江(청강)의 바를 뺏고
 訪花 隨柳(방화 수류)하여 興(흥)을 타고 도라오니
 風乎詠而歸(풍호영이귀)⁵⁾인들
 이 興(흥)에 더을손가
 春興(춘흥)이 이러커든 秋興(추흥)이야 저글소냐

하늘이 아끼고 땅이 감추어
 나를 주려 남겼도다.
 다툼 이 없으니 다만 나만 두고 즐기도다.
 어질면 산이 좋고 지혜로우면 물 좋다 하니
 어찌 이른 말씀인가.
 볼품없는 이 몸이 어짐을 알라마는
 산수에 벽이 있으니 늙을수록 더해간다.
 저 귀한 삼정승과 이 강산을 바꿀 소냐.
 이렇게 미친 마음 웃을 이 많다마는
 아무리 웃어도 나는 좋게 여기노라.
 이리저리 옮겨 사니 가진 것이 얼마이리.
 시골 늙은이 남은 생애 많아야 할까마는
 조상 그리며 제사를 정성껏 지낸 후에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그 밖에 남은 일은 조금이나 바랄 소냐.

아무 걱정 근심 없어 이 강산에 누웠으니
 뉘라셔 세상일은 듣고 보도 못하리라.
 꽃이 피고 잎 지지 않는다면
 어찌 계절 알리런가.
 매창에 꽃 피거늘 새봄을 구경할까.
 청려장 빗겨 쥐고 동자를 불러내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삼삼오오 모였다가
 이백 두보 섞여 읊고 속읊 난 잔디 위에
 조심스레 흠어 걸어 맑은 강에 발을 씻고
 꽃을 찾고 버들 따라 흥을 차고 돌아오니
 바람을 쐬고 시 읊으며 돌아오니
 이 흥에서 더할 손가.
 봄 흥이 이러거늘 가을 흥이야 적을 소냐.

1) 고치기 어렵게 굳어 버린 버릇.

2) 爰居爰處 爰喪其馬 于以求之 于林之下(원거원처 원상기마 우이구지 우림지하)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머물던 곳에 서 타던 말까지 잃어버려 어디 갔는지 모르는구나. 어디 가서 말을 찾을까, 숲 아래를 헤매이네. - “시경(詩經)” ‘邶風(邶風) 격고(擊鼓)’ 편.

3) 이백(李白)과 두보(杜甫)의 시

4) 발을 무겁게 한다는 말로 행동거지를 조심스럽게 함.

5) 바람을 쐬고 시를 읊고 돌아오던 일.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욕호기 풍호무우 영이귀),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에서 바람 쐬고 노래하면서 돌아온다. - “논어(論語)”, ‘선진(先進)’편.

金風 一陣(금풍 일진)이 庭畔(정반)의 지나 부러
 지는 머피 혼 님피 새 又(아) 알외는다
 張翰(장한)의 江東去(강동거)¹⁾도 오늘날 아니런가
 正值(정치) 秋風(추풍)이 반가와도 보이는다
 斗酒(두주)를 드나 쓰나 瓶(병)째 메고 버들 불너
 隔岸(격안) 漁村(어촌)에 내노리 가자쓰라
 白接羅(백접리)를 젖쓰고 小艇(소정)을 타고 오니
 夕陽의 지친 蘆花(노화) 갠 하늘에 눈이 되어
 斜陽(사양)의 눅피 느라 어저러이 썩리는데
 굴넙페 닳틀 노코 蠶吐(잠토)짖 그물의
 결잔 긴 江(강)의 紫鱗銀澹(자린은순)을
 數(수)업시 자바너여
 蓮(연)넙페 다몬 鱸(회)과 鱸(병)의 처운 수를
 厭(염)복토록 머근 後(후)의
 苔磯(태기) 너븐 돌에 눅피 베고 누어시니
 羲皇 天地(희황 천지)²⁾를 오늘 다시 보아괴야
 처근듯 줍드러 欸乃聲(애내성)의 썩드르니
 秋月(추월)이 滿江(만강)하야 밤비출 일허거늘
 半醉 閑吟(반취 한음)³⁾하고 船上(선상)의 건너오니
 波底(파저)의 줍긴 들은 쏘 어인 달인 게오
 들 우희 비를 타고 들 아래 안자시니
 문득 疑心(의심)은 月宮(월궁)의 올라는 듯
 物外 奇觀(물외 기관)이 춤남하야 보이는다
 清景(정경)을 드토면 내 分(분)에 두라마는
 取之無禁(취지무금)⁴⁾이라 나만 둔가 녀기노라
 놀기에 貪(탐)하야 도라갈 줄 니졌듯자
 아히야 닳 드리라 晚潮(만조)에 썩여 가자
 清菰(청고) 葉上(엽상)의 江風(청풍)이 짐짓 니러

가을바람 한 무리가 뜰 가에서 지나 불어
 지는 오동잎 한 잎으로 가을을 알리로다.
 장한의 강동 감이 오늘이 아니런가.
 마침 부는 가을바람 반가워도 보이누나.
 말술을 다나 쓰나 병째 메고 벼를 불러
 언덕 사이 어촌으로 나들이 가자쓰라.
 흰 두건을 젖혀 쓰고 작은 배를 타고 오니
 바람에 지친 갈대꽃 갠 하늘에 눈이 되어
 노을에 높이 날아 어저러이 뿌리는데
 갈잎에 닳을 놓고 누에 토한 그물로
 물결 잔 긴 강에서 금빛 비늘 은빛 주둥이
 수 없이 잡아내어
 연잎에 담긴 회와 질병에 채운 술을
 싫도록 먹은 후에
 이끼 낀 넓은 돌을 높이 베고 누웠으니
 복희씨의 세상을 오늘 다시 보는구나.
 어느덧 잠이 들어 뱃노래에 깨어나니
 가을 달이 강에 내려앉아 밤빛을 잃었거늘
 반쯤 취해 시 읊으며 배 위로 건너오니
 물결 아래 잠긴 달은 또 어인 달인 게오.
 달 위에 배를 타고 달 아래 앉았으니
 문득 의심하기를 월궁으로 올라간 듯
 세상 밖 기이한 풍경 참람하게 보이누나.
 정경을 다툰다면 내 분수로 두라마는
 임자 없어 금하지 않아 나만 둔가 여기노라.
 놀기를 욕심내어 돌아갈 줄 잊었도다.
 아이야, 닳 들어라, 만조에 띄어 가자.
 푸른 줄풀 잎 위로 강바람이 짐짓 일어

- 1) 張翰江東去(장한강동거) 正值秋風時(정치추풍시), 장한이 멀리 강동으로 떠나가니 마침 가을바람에 낙엽 지는 계절을 맞았구나. - 이백(李白), ‘송장사인지강동(送張舍人之江東)’. 장한(張翰)은 중국 진나라 사람으로, 왕이 대사마(大司馬)를 삼았으나 가을바람이 불자 고향의 농어회가 그리워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함.
- 2) 복희씨(伏羲氏).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으로 팔괘를 처음으로 만들고, 그물을 발명하여 고기잡이의 방법을 가르쳤다고 함.
- 3) 落花流水認天台 半醉閑吟獨自來 惆悵仙翁何處去 滿庭紅杏碧桃開 (낙화유수인천태 반취한음독자래 추창선옹하처거 만정홍행벽도개), 꽃이 떨어지고 물이 흐르니 세상 넓음을 알고, 술에 반쯤 취하여 한가하게 시 읊으며 홀로 왔다네. 슬프게도 선옹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고, 붉은 살구꽃과 푸른 복숭아꽃만 활짝 피어 뜰에 가득하네. - 고변(高駢), ‘방은자불우(訪隱者不遇)’
- 4) 임자 없는 물건을 마음껏 가져도 말리는 사람이 없음.

歸帆(귀범)¹⁾을 뵈야는 듯
 아득던 前山(전산)이 忽後山(홀후산)의 보이느다
 須臾羽化(수유우화)²⁾하여 蓮葉舟(연엽주)에 올라는 듯
 烟波(연파)를 헤치고 月中(월중)의 도라오니
 東坡(동파)³⁾ 赤壁遊(적벽부)인들 이 내 興(흥)에 미칠런가
 江湖 興味(강호 흥미)는 나만 둔가 너기노라
 堯明 聖世(요명 성세)에 巢許(소허)⁴⁾도 아닌 거시
 白首 生平(백수생평)의 이 名區에 넘재 되야
 봄이라 이러하고 ㄱ을이라 그러하니
 此間 眞樂(차간 진락)이 布衣極(포의극)⁵⁾ 아닐소나

이 江山(강산) 뉘 싸고 聖主(성주)의 싸히로쇠
 聖主(성주)의 臣子(신자)를 뵈죽도 하다마는
 이 몸이 어리거든 稷契(직설)⁶⁾이 되리런가
 太平 文教(태평문교)에 모다 버린 사람 되야
 秋月(추월) 春風(춘풍)의 是非(시비) 업시 누엇썩야
 아마도 이 몸이 聖恩(성은)도 罔極(망극) 할사
 百番(백번)을 주거도 가플 일이 어려워라
 窮達(궁달)이 길히 달라 못 뵈옵고 물려서도
 犬馬微誠(견마미성)⁷⁾은 갈소록 새롭느다
 平生(평생)애 품은 뜻을 비노이다 하느님께
 北海水(북해수) 여위도록 聖主 萬歲(성주 만세)쇼셔
 堯天 舜日(요천 순일)⁸⁾을
 每每(매매) 보게 삼기쇼셔

뚝 달고 돌아가기를 재촉하는 듯
 아득하던 앞산이 홀연 뒷산에 보이누나.
 잠깐 사이 깃이 나서 연잎배에 올랐는 듯
 안개 물결 헤치고 달 가운데로 돌아오니
 소동파 적벽부인들 이내 흥에 미칠런가.
 강호의 흥미는 나만 가졌다 여기노라.
 요임금 태평성대 소부 허유 아닌 것이
 흰 머리 한평생으로 이곳의 임자 되어
 봄이라 이러하고 가을이라 그러하니
 이 사이의 즐거움이 배움이 아니겠나.

이 강산은 뉘 땅인가, 성주의 땅이로세.
 성주의 신하됨을 씀 직도 하다마는
 이 몸이 어리석어도 직설이 되리런가.
 태평시대 가르침에 모두 버린 사람 되어
 가을 달 봄바람에 시비 없이 누엇구나.
 아마도 이 몸이 성은도 망극할 사.
 백번을 죽어도 갚을 일이 어려워라.
 부귀함의 길이 달라 못 모시고 물려서도
 성주 향한 작은 정성 갈소록 새롭구나.
 평생에 품은 뜻을 비나이다, 하느님께.
 북해수 마르도록 우리 성주 만세 누리쇼셔.
 요임금의 하늘과 순임금의 해를
 매번 보게 해 주소서.

1) 멀리 나갔던 돛단배가 돌아옴.

2) 縱一葦之所如 凌萬頃之茫然 浩浩乎如馮虛御風 而不知其所止 飄飄乎如遺世獨立 羽化而登仙 (종일위지소여 능만경 지망연 호호호여풍허어풍 이부지기소지 표표호여유세독립 우화이등선), 한 조각 작은 배 가는 대로 내어 맡기고 망망한 만경창파를 건너간다. 넓고 넓은 것이 허공을 타고 바람을 모는 듯, 그 머무는 곳을 모르겠고 가벼이 떠 올라 속세를 버리고 우뚝 서 있는 듯, 날개 돋아 신선이 되어 하늘을 오르는 듯하다. - 소동파(蘇東坡), '적벽부(赤壁賦)'

3) 소동파(蘇東坡). 중국 북송 때의 시인.

4) 소부(巢父)와 허유(許由). 중국 고대 전설상의 성군 요(堯)임금 때 살았다는 사람들로 허유는 요임금이 자기에게 보위를 물려주려 하자 귀가 더럽혀졌다고 영천(潁川)에서 귀를 씻은 후箕山(箕山)으로 들어가서 은거하였고, 소부는 허유가 귀를 씻은 영천의 물이 더럽혀졌다 하여 물고 온 소에게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고 함.

5) 배움. 벼슬하지 않은 선비.

6) 설(契)과 后稷(후직). 후직은 중국 요임금 때 농사(農師)라는 직책을 맡았고, 설은 교육의 책임자인 사도(司徒)가 됨. 곧 나라의 중요한 신하.

7) 개와 말이 사람을 충성스럽게 섬기듯이 임금님을 섬기고자 하는 작은 정성.

8) 요순시대와 같은 태평성대

億兆 生靈(억조 생령)을 擊壤歌(격양가)¹⁾를 불리쇼서
이 몸은 이 江亭風月(강정풍월)의
늡을 뉘를 모르리라

모든 백성들이 격양가를 부르게 하소서.
이 몸은 강가의 정자에서 풍월 읊으며
늡을 줄을 모르리라.

1) ‘땅을 치며 노래한다’는 뜻으로 요임금 때의 태평세월을 의미함.

7. 勸酒歌(권주가, 1632)

그대는 내 말 들소 黃河水(황화수) 아니본가
 奔流到海(분류도해)하야 다시 도라 못 오더라¹⁾
 高堂明鏡(고당명경)의 悲白髮(비백발) 아니 본가
 아침에 검던 머리 나죄는 희더괴야²⁾
 흔 적 흰 후의 다시 검어 보로손가
 늘근 사름 更少年(갱소년)이 千萬古(천만고)에 업편마는
 꿈갓 人世(인세)을 ㄱ업시 살가 너겨
 살줄만 알고 주글 줄 모로더라
 주글 줄 모로거든 먹글 줄 알로소냐

머글 줄 모로거든 늙줄 줄 알로손가
 世上(세상) 사름들히 아마도 어리더라
 아조 쉬오디 썩듯찌 못히더라
 秦皇(진황) 漢武(한제)³⁾도 늙대로 주것거든
 草野寒生(초야한생)이 어닉 仙藥(선약) 어더먹고
 赤松子(적송자)⁴⁾ 되로손고
 人間 七十(인간 칠십)도 네록부터 드물거든
 몇 百歲(백세) 사로리라 더ㄱ티 奔走(분주)히리
 榮辱(영욕)이 并行(병행)히니 富貴(부귀)도 不關(불관)터라
 生前(생전) 酒一盃(주일배) 그 아니 관겨흔가
 이 흔 壽(잔) 아니면 이 시름 어이히리
 偶然(우연)히 만나니 二難(이난)⁵⁾도 ㄱ쫓꼬야
 二難(이난)이 ㄱ즈니 四美(사미)⁶⁾도 ㄱ다마는⁷⁾

그대는 내 말 들소, 황화수 아니 보았는가.
 바다로 흘러내려 다시 돌아 못 오더라.
 높다란 대청에서 슬픈 백발을 못 보았는가.
 아침에 검던 머리 저녁에 희더구나.
 한 번 흰 후에 다시 검어 지겠는가.
 늙은 사람 다시 젊기 예로부터 없건마는
 꿈같은 인생을 끝없이 살까 여겨
 살 줄만 알고 죽을 줄 모르더라.
 죽을 줄 모르거든 먹을 줄은 알 것인가.

먹을 줄 모르거든 남 줄 줄은 알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아마도 어리석더라.
 아주 쉬운 것도 깨닫지 못하더라.
 진시황 한무제도 남들처럼 죽었는데
 시골의 가난한 선비 어떤 선약 얻어먹고
 적송자가 되겠는가.
 인생 칠십도 예로부터 드물거든
 몇 백 살을 살겠다고 저같이 분주한가.
 영욕이 함께 하니 부귀도 관계없더라.
 살았을 적 술 한 잔을 그 아니 꺼려 하나.
 이 한 잔 아니면 이 시름 어이하리.
 우연히 만나니 주인 손님 만났구나.
 주인 손님 만났으니 네 즐거움 가졌지만

1) 君不見 黃河之水天上來 奔流到海 不復廻 (군불견 황하지수천상래 분류도해 부복회) 그대는 못 보았는가, 하늘에서 내린 황하의 물이, 바다로 흘러내려, 다시 돌아 오지 못함을 - 이백(李白), '장진주(將進酒)'

2) 又不見高堂 明鏡悲白髮 朝如青絲 暮如雪 (우불견고당 명경비백발 조여청사 모여설) 또한 못 보았는가 높다란 대청에서, 귀인의 거울 속의 백발을 슬퍼함을, 아침에 청사 같던 머리가, 저녁에 눈같이 되네. - 이백(李白), '장진주(將進酒)'

3) 중국 한나라의 제7대 황제로 한왕조의 최대 부흥을 이룩한 한무제.

4) 중국 전설 시대의 선인(仙人)으로 신농(神農) 때의 우사(雨師)였다가 후에 곤륜산에 입산하여 선인이 되었다고 함.

5) 얻기 힘든 두 가지, 현명한 주인과 훌륭한 손님. 여기서는 술을 마시는 작자(주인)와 술(손님)을 의미함.

6) 네 가지 아름다움. 곧 좋은 시절(良辰), 아름다운 경치(美景), 그 경치를 감상하고 즐기는 마음(賞心), 주식(酒食)과 시가(詩歌)와 음악 등의 유쾌한 일(樂事).

7) 四美具二難并 (사미구이난병), 사미를 갖추었고 만나기 어려운 두 분도 어울렸구나. - 왕발(王勃), '등왕각서(滕王閣序)'

世事(세사)이 齟齬(저어)하니 𠄎준 일은 업거이와
 龍鳳(용봉)을 못 구어도 羊(양)염이나 닉썸 술고
 烏程酒(오정주)¹⁾ 업거든 三亥酒(삼해주)²⁾나 𠄎득 브어
 먹고 또 먹고 數(수)업시 먹사이다
 天地(천지)도 愛酒(애주)호샤 酒星(주성)³⁾酒泉(주천)⁴⁾ 삼기시고
 古昔聖賢(고석성현)도 다 즐겨 자섯거든
 千載下(천재하) 브린 몸이 술먹기 아니코
 히을 일이 또 잇는가
 저므도록 새도록 晝夜(주야)의 먹새이다
 호물며 青春日將暮(청춘일장모)에
 桃花(도화)이 亂落(난락)호야⁵⁾
 醉眼(취안)의 아득하니
 구름업스 불근비 半空(반공)에 썸리느듯
 景致奇觀(경치기관)이 견훤디 뇌야 업닌
 이 𠄎튼 花時(화시)에 아니놀고 엇찌호리
 一朝(일조)에 죽거가면 어늬 날에 다시 놀며
 深山(심산) 긴 술 아래 어늬 버디 츠자가
 또 혼 蠶(잔) 勸(권)홀런고

이런 일 싱각거든 𠄎 아니 𠄎썸온가
 이 蠶(잔) 자브시고 이 말썸 고터든소
 사람 내실 적의 忠孝(충효) 𠄎썸 삼기시니
 아마도 하늘 아래 忠孝(충효)밧썸 重(중)홀런가
 大丈夫(대장부) 혼 썸을 忠孝間(충효간)의 브터두고
 나몬 힘 잇거든 어딘 벳 드리고
 秋月春風(추월춘풍)의 醉(취)키만 호사이다
 一樽酒(일준주) 그쳐갈제 니을 일만 分別(분별)호새
 五花馬(오화마)⁶⁾ 업거든 이 𠄎웃 벳슬만정

세상일이 두려우니 가진 것은 없거니와
 용과 봉황 못 구해도 양과 염소 익게 삼고
 오정주는 없었어도 삼해주나 가득 부어
 먹고 또 먹고 수 없이 먹사이다.
 세상도 술이 좋아 주성 주천 만드시고
 오랜 옛날 성현들도 다 즐겨 자섯거든
 오랜 세월 버려진 몸 술 먹기 아니하고
 다른 할 일 또 있는가.
 저물도록 날 새도록 밤낮으로 먹어보세.
 하물며 푸른 봄도 장차 저물어 갈 것이고
 복사꽃도 어지러이 떨어져서
 취한 눈에 아득하려니
 구름 없는 붉은 비 공중에 뿌리는 듯
 기이한 경치를 견줄 데 전혀 없네.
 이같이 꽃이 질 때 아니 놀고 어찌하리.
 하루아침 죽어가면 어느 날에 다시 놀며
 깊은 산 큰 술 아래 어느 벳이 찾아가서
 또 한잔 권할런고.

이런 일 생각하면 𠄎 아니 북받칠까.
 이 잔 잡으시고 이 말썸 고쳐 든소.
 사람 내실 적에 충효 같이 만드시니
 아마도 하늘 아래 충효 밖에 중요할까.
 대장부 한 뜻을 충효에 붙여두고
 남은 힘 있거든 어진 벳 드리고
 가을 달 봄바람에 취하기만 하사이다.
 한 동이 술 마셔갈 때 이을 일만 분별하세.
 좋은 말 없거든 이 벳을 벳을만정

1) 중국 오정현(烏程縣)에서 빚는 약하주(若下酒)로 중국의 명주(名酒).

2) 정월의 세 해일(亥日)에 빚은 술.

3) 술에 관한 일을 맡고 있다는 별.

4) 중국 감숙성(甘肅省)의 도시로 한(漢)나라 때 흉노족에게 광거병(霍去病)이라는 유행병이 돌았는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작은 샘에 술을 부은 다음 그 물을 마시게 했다는 고사에서 지명이 유래함.

5) 況是青春日將暮 桃花亂落如紅雨 勸君終日醺醺醉 (황시청춘일장모 도화난락여홍우 권군종일명정취), 하물며 이 푸른 봄도 장차 저물어 가고, 복사꽃도 붉은 비처럼 떨어질 것이니, 그대에게 권하니 종일 흠뻑 취하라. - 이하(李賀), '장진주(將進酒)'

6) 오색 빛깔이 나는 말

호리나 몰그나 업단말란 마사이다
鐘鼎(종정)¹⁾ 玉帛(옥백)²⁾도 貪(탐)티란 마사이다
三萬六千日(삼만육천일)의 但願長醉(단원장취)하고
不願醒(불원성) ㅎ사이다³⁾
石崇(석송)⁴⁾이 주거갈제 프어술 가져가며
劉伶墳上土(유령분상토)⁵⁾애
어닉 술이 니를런고
아미라다 그릴 人生(인생)이
산 제 노자 ㅎ노라

호리나 맑으나 술 없다 마사이다.
종정이나 옥배도 욕심내지 마사이다.
일백 년 오로지 원하기를 크게 취해
내내 깨지 앓길 원하나이다.
석송이 죽어갈 때 무엇을 가져가며
유령의 무덤 위에 뿌리지 못하리니
어느 술을 이룰런고.
아무렴 그런 인생이라
살았을 제 놀자 하노라.

1)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의 생활

2) 나라 사이에 주고받던 귀한 선물

3) 但願長醉不用醒 (단원장취불용성), 오로지 원하느니 내내 취해 안 깨는 것이라. - 이백(李白), '장진주(將進酒)'

4) 중국 서진(西晉) 때의 부호.

5) 유령은 서진(西晉)의 사상가로 죽림칠현의 한 사람인데 술을 몹시 즐겼다 함. 酒不到劉伶墳上土 (주부도유령분상토), 유령의 무덤에 뿌리지도 못할 술일 것이니 - 이하(李賀), '장진주(將進酒)'

8. 相思曲(상사곡, 1632)

天地間(천지간) 어찌 일이 늙대되 설운 게오
 아마도 설울슨 님그려 설운데고
 陽臺(양대)¹⁾에 구름비는 흘러던디 몇힌게오
 半鏡(반경)이 보미여찌 소귀 무쳤느다
 靑鳥(청조)도 아니오고 白鴈(백안)²⁾도 그쳐시니
 消息(소식)도 못듯거든 님의 양주 보로손가
 花朝月夕(화조월석)의
 울며 그릴 뿐이로다
 그러도 못볼식 그리기도 말라너겨
 나도 丈夫(장부)로써 모던 므음 지어내야
 이제나 닛싸흔들 눈에 절로 불피거든
 서러 아니 그릴소냐
 그리고 못보니 一日(일일)이 三秋(삼추)³⁾이로다
 怨讎(원수)이 怨讎(원수)아녀 못넋기 怨讎(원수)로다
 徙宅忘妻(사택망처)⁴⁾는 귀 옛편 사름인고
 잊는딴 알고자 秦楚(진초)⁵⁾원들 아니가랴
 無心(무심)코 니즘혈기 비화나 보고지고
 質鈍(질둔)흔 性分(성품)의 므슴 才藝(재예)이 이시리마는
 님 向(향)엔 聰明(총명)이야 師曠(사광)⁶⁾인들 미출소냐
 聰明(총명)도 病(병)이 되어 날로조차 디터가니
 먹던밥 덜먹기고 자던잠 덜자인다
 슬못진 얼굴이 愁色(수색)계워 거머가니
 醉(취)는덧 어리는덧
 淸心元(청심원)⁷⁾ 蘇合丸(소합환)⁸⁾ 마셔도 效驗(효험)업다

천지간의 어떤 일이 남보다 서러운 게오.
 아마도 서러운 건 임 그리워 서럽구나.
 양대에 구름비가 흘러린 지 몇 해인가.
 반쪽 거울 녹슬어 그 속에 묻혔구나.
 파랑새도 아니 오고, 흰 기러기도 그쳤으니
 소식을 못 듣는데 님의 모습 볼 것인가
 아침에 꽃 보며 저녁에 달 아래서
 울며 그리워할 뿐이로다
 그리워도 못 본다면 그림지나 말 것인가
 나도 장부로서 모진 마음 지어내어
 이제야 잊자 한들 눈에 절로 밟히거든
 서러운데 아니 그리워 할 것인가.
 그리워도 못 보니 하루가 삼추로다.
 원수가 원수가 아니고 못잊는 게 원수로다.
 사택망처는 그 어떤 사람인가.
 잊는 곳을 안다면은 먼 곳인들 아니 가랴.
 무심하게 잊는 법을 배워나 보고지고.
 어리석은 성품이야 무슨 재주 있을까마는
 임 향한 총명이야 사광에 미칠 것인가.
 총명도 병이 되어 나날이 지쳐가니
 먹던 밥 먹지 못하고 자던 반 덜 자게 된다.
 살찐 얼굴도 수심 겨워 검어지니
 취하는 듯 어리석은 듯
 청심원 소합환을 마셔도 효험없다.

1) 남녀 간에 정을 나누는 방. 초 양왕(楚襄王)이 일찍이 고당(高唐)에서 놀다가 낮잠을 잤는데, 꿈에 한 부인이 와서 “저는 무산(巫山)의 여자로서 임금님이 여기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왔으니, 침석(枕席)을 같이해 주십시오.” 하므로, 임금은 하룻밤을 그와 함께 잤다. 그 이튿날 아침에 부인이 떠나면서 “저는 무산의 양지쪽 높은 언덕에 사는데 매일 아침이면 구름이 되고 저녁이면 비가 됩니다.” 하였다는 고사.

2)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를 일컬음.

3) 아주 긴 세월.

4) ‘이사하면서 아내를 잊고 간다’는 말로 가장 중요한 일을 잊는 일을 말함.

5) 진나라, 초나라 지역으로 매우 먼 곳을 말함.

6) 사광지충(師曠之聰). 사광의 귀가 밝다는 뜻. 사광은 중국 춘추시대 진나라의 음악가로 소리를 들으면 잘 분별하였다 함.

膏肓(고황)의 든 病(병)을 扁鵲(편작)¹⁾이라 고틸소나
人命(인명)이 重事(중사)라 못죽거 사랏노라

첨엄 거를 적의 이리되자 거론일가
比翼鳥夫妻(비익조부부)²⁾되야 連理枝(연리지)³⁾ 솟플아래⁴⁾
構木爲巢(구목위소)호고 木實(목실)을 먹글만정
이싱 췌으란 흐르도
離別(이별)뉘를 보디 마자 願(원)이러니
東西(동서)의 외오두고 그리기에 다늘썩다
네부터 닐은 말이
牽牛織女(견우직녀)를 天上人間(천상인간)의 어엿썩다 흐건마는
그러타 저희는 흐 히예 흐 적을
히마다 보건마는 애들올샤 우리는
몇 銀河(은하)이 𠵿려서 이대도록 못보논고
明皇(명황)은 貴妃(귀비)⁵⁾를 주겨나 여히여니
썩다 썩다흔들 우리 𠵿티 설울런가
사라져 못보니 더욱흐나 罔極(망극)호다
愁心(수심)은 불이 되어 가슴애 피어나니
절로난 그 불이 남의 탓도 아니로되
내히 하 설워 燧人氏(수인씨)⁶⁾를 怨(원)호노라
咸陽宮殿(함양궁전)⁷⁾이 다몬 三月(삼월) 불거셔도
至今(지금)에 그 불를 오래타다 호것마는
이 怨讐(원수)이 불은 몇 三月(삼월)을 디내연고
눈물은 霖雨(임우)이 되고 한숨은 바람이 되어
불거니 썩리거니 그칠 적도 업서시니

가슴에 든 병을 편작이 고칠 것인가.
운명이 중요한지라 못 죽어 사는구나.

처음 걸을 때 이리되자 걸었을까.
비익조 부부되어 연리지 수풀 아래
나무에 집을 짓고 나무열매를 먹을망정
이생을 떠날 때까지 하루도
이별할 때 보지 말자 원하였는데
동서에 외파로 있어 그리기에 다 늙었다.
예부터 이르는 말이
하늘의 견우직녀 불쌍하다 하였지만
그래도 저들은 한 해에 한 번을
해마다 보지마는 애달픈 우리는
몇 은하수 가려서 이토록 못보는가.
명황은 귀비를 죽어서나 이별했지만
썩다 썩다 한든 우리같이 서러운가.
살아서 못 보니 더욱 망극하다.
수심은 불이 되어 가슴에 피어나니
저절로 난 그 불이 남의 탓도 아니로되
내 하도 서러움에 수인씨를 원망하노라.
함양 궁전은 다만 석 달만 탔었는데
지금은 그 불을 오래 탔다 하건마는
이 원수의 불은 몇 석 달을 타는 것인가.
눈물은 장마 되고 한숨은 바람 되어
불고 뿌리고 그칠 때가 없으리니

7) 우황, 인삼, 산약 따위를 비롯한 30여 가지의 약재로 만든 알약.

8) 정신을 상쾌하게 하고 위장을 맑게 하는 약.

1) 중국 전국 시대의 명의(名醫).

2) 암컷 수컷의 눈과 날개가 하나씩이어서 언제나 깃을 나란히 하여 하늘을 날아다니는 상상의 새.

3) 가지가 맞닿은 두 나무

4) 七月七日長生殿 夜半無人私語時 在天願作比翼鳥 在地願爲連理枝 天長地久有時盡 此恨綿綿無絕期 (칠월칠일장생전 야반무인사어시 재천원작비익조 재지원위연리지 천장지구유시진 차한면면무절기), 7월 7일 장생전에서, 깊은 밤 사람들 모르게 한 맹세, 하늘을 나는 새가 되면 비익조가 되고, 땅에 나무로 자라면 연리지가 되자고 맹세했었지, 천지 영원하다 해도 다할 때가 있겠지만, 이 슬픈 사랑의 한 끊일 때가 없으리. - 백거이(白居易), '장한몽(長恨夢)'

5) 당현종과 양귀비

6) 중국 고대 전설에 나오는 삼황(三皇)의 하나로 불을 쓰는 법과 음식을 만드는 법을 전하였다고 함.

7) 항우(項羽)가 함양 궁전에 지른 불, 3개월간 탔다고 함,

이 비로 더 불을 켜죽도 헛다마는
 었찌흔 불인디 風雨中(풍우중)에 트노왜라
 水火相克(수화상극)도 거짓말이 되엿고
 야픽거니 썬리거니 勝負(승부)업시 싸호거든
 죠고만흔 몸은 戰場(전장)이 되엿는다
 아이고 하느님아
 七夕(칠석) 비¹⁾ 누리워 이싸홈 말이쇼서
 어엿썬이 몸은 살가너겨 브라닌다
 알고저 前生(전생)의 므슴 罪(죄)를 지어두고
 여혈제 검던머리 회도록 못보느고
 스량은 혜염업서 老少(노소)도 모르느가

十年前盟誓(십년전맹서)를 오늘 문득 싱각하니
 金石(금석)²⁾뵈튼 말숨이 어제론덧 그제론덧
 귀에 징징하야 사나이 므음이
 盟誓塵土(맹서진토)이 되다 니줄소냐
 아소온 내뜻은 다시 불가브라거든
 一年三百日(일년삼백일)에 니친 홀니 이실소냐
 春窓(춘창)의 느지 니러 幽懷(유회)를 둘디업서
 臨風悵悵(임풍초창)하며 四隅(사우)로 도라보니
 윈갓곳 다 피여 그린더시고 완느디
 探花蜂蝶(탐화봉접)들은 도토와 든이거든
 버들우회 꺾고리는 雙雙(쌍쌍)이 빗기느라
 조치거니 쫓오거니 金(금)복을 더디느덧
 혼소리 두소리 노피락 느지락
 無情(무정)히 울건마는
 었디흔 내귀예는 有情(유정)하야 들이느다
 더뵈튼 微物(미물)도 雌雄(자웅)을 各各(각각)삼겨
 嬌態(교태)계워 논다마는
 最貴(최고)흔 사름은 새마도 못헛고야
 薄命人生(박명인생)은 萬物中(만물중)에 어엿썬다
 ㄱ을밤 채긴 제 寂寞(적막)흔 房(방)안해
 어둡흔 그리매 말업슨 버디 되야

이 비로 저 불을 끌 수도 있지마는
 어찌된 불인지 비바람 속에 타는구나.
 물과 불이 상극이란 말 거짓말이 되었구나.
 피우거니 뿌리거니 승부 없이 싸우는데
 조그마한 내 몸이 전쟁터가 되었구나.
 아이고 하느님아.
 칠석날 비를 내려 이 싸움 말리소서.
 불쌍한 이 몸이 살기를 바랍니다.
 알고자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두고
 헤어질 때 검던 머리 회도록 못 보는가.
 내 사랑은 생각 없어 늙는 줄을 모르는가.

십년 전 맹세를 오늘 문득 생각하니
 금석 같은 말숨이 어제인지 그제인지
 귀에 쟁쟁하야 사나이 마음이
 맹세가 흙이 된다고 잊을 소냐.
 아쉬운 내 뜻을 다시 불가 바라거든
 일 년 삼백일 잇고 사는 하루가 있을 소냐.
 봄날 늦게 일어나 회포를 둘 데 없어
 바람 맞고 슬퍼지니 사방을 돌아보아
 온갓 꽃들 다 피어 그린 듯이 아름다운데
 꽃 탐하는 벌 나비는 다투어 다니거든
 버들 위의 꺾고리는 쌍쌍이 나는구나.
 쫓기고 따르거니 금복을 던지는 듯
 한 소리 두 소리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아무 뜻 없이 울건마는
 어찌하여 내 귀에는 뜻 있게 들리누나.
 저 같은 미물도 암수로 각각 태어나서
 아양 떨며 놀지마는
 가장 귀한 인간은 새만도 못하는구나.
 박명한 인생은 만물 중에 불쌍하다.
 가을밤 길어진 때 적막한 방 안에
 어둡한 내 그림자 말 없는 벗이 되어

1) 견우와 직녀가 만나 흘리는 눈물

2) 쇠붙이와 돌이라는 뜻으로, 매우 굳고 단단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孤燈(고등)을 挑盡(도진)하고 輾轉反側(전전반측)하야
 밤샘만 어둠 줌이 머괴비¹⁾에 썩드르니
 九曲肝腸(구곡간장)을 굵는듯 썩는듯
 새도록 쓸히느다
 風清月白(풍청월백)하고
 三更(삼경)이 깊어갈 제
 東窓(동창)을 더디 닫고 외로이 안자시니
 님의 낙취 비취 들이 혼비초로 불가시니
 반기는 眞情(진정)은 님을 본듯 하다마는
 님도 들을 보고 나를 본듯 반기는가
 더 들을 노피 불너 무려나 보고전들
 九萬里長天(구만리장천)의 어둠 들이 되답하리
 어둠 뉘 말이
 春風秋月(춘풍추월)을 興(흥)만타 하던 게오
 었찌흔 내눈에는 다슬히 보이느다
 봄이라 이러하고 ㄱ을히라 그러하니
 舊愁新恨(구수신한)이 疊疊(첩첩)이 싸헛느다
 몇 百歲人生(백세인생)이 千歲憂(천세우)를 품어이서
 天荒地老(천황지로)흔들 이내 恨(한)이 그칠소나
 못보는 더님을 이데도록 그리느고
 저근듯 아직 니저 후리쳐 더저두자
 數(수)잇는 離合(이합)을 힘대로 호로소나
 言約(언약)을 구지밋고 기드려는 보렷노라

盈虛否泰(영허부태)²⁾는
 天道(천도)이 自然(자연) 그러하니
 初生(초생)애 이즌 들도 보름애 두렷거든
 青春(청춘)애 눈흔 거울이 제아니 모들소나
 흰머리 쏘기 少年情(소년정)을 가져이서
 其新(기신)도 孔嘉(공가)커든
 其舊(기구)이 었더호로소니
 山水(산수) ㄱ즌 골의 草幕(초막)을 주피혀고
 용티못흔 生涯(생애)를 有餘(유여)코져 브랄소나

외딴 등불 심지를 태우고, 옆치락 뒤치락
 한밤중 어떤 잠이 머괴비에 깨어나니
 구곡간장이 끓어지는 듯 찢어지는 듯
 밤새도록 애를 끓이는구나.
 하물며 바람소리 맑고 달이 밝아
 밤이 깊어갈 때
 동창을 늦게 닫고 외로이 앉아 있고
 임 얼굴에 비춘 달이 같은 빛으로 밝았으니
 반기는 마음은 입을 본 듯 한다마는
 임도 달을 보고 나를 본 듯 반기는가.
 저 달을 크게 불러 물어나 보려 해도
 높고 먼 하늘에 어떤 달이 대답할까.
 어느 누가 말하기를,
 봄 바람 가을 달을 흥이 많다 했는가.
 어찌하여 내 눈에는 다 서러워 보이누나.
 봄에도 서럽고 가을에도 그러하니
 옛 근심과 새 한숨이 겹겹이 쌓였구나.
 몇 백 년 사는 인생 천년 근심 품었으니
 긴긴 시간이 흐른들 이내 한이 그칠 것인가.
 못 보는 저 입을 이토록 그리울까.
 잠시 동안 아주 잇고 팽개쳐 던져두자.
 수많은 만남 이별 내 힘으로 바꾸겠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려 보겠노라.

가득차면 반드시 이지러짐은
 하늘이 정한 운수라, 자연히 그러하니
 초승에 이지러진 달도 보름에는 둥글거든
 청춘 시절 나눈 거울 이제 아니 모으겠나.
 흰 머리라도 젊은 시절의 마음을 지니고
 신흠 때 즐거웠는데,
 옛정은 지금이야 어떠하랴.
 산수 간 골짜기에 초가집을 작게 짓고
 넉넉하지 못한 삶에 여유를 바라겠나.

1) 오동나무 잎에 떨어지는 빗소리

2) 가득차면 이그러짐. 막힌 운수와 터진 운수로 곧 불행과 행복.

두서 이렇 돌밭툼 갈거니시 브거니
 五穀(오곡)이 蕃熟(번숙)써든 追遠奉祭祀(추원봉제사)이나
 誠敬(성경)을 닦은 後(후)의
 이시면 밥이오 업스면 粥(죽)을 먹고도
 혼일 못보아도 구즌일 업슬선정
 五十(오십)애 아들 나하 子孫(자손)아기 늙도록
 一生(일생)애 덜밧던 정을 슬피도록 좇니리라

두어 이랑 돌밭을 갈 것이니
 오곡이 잘 익거든 제사를 지낼 것이나
 정성을 다한 후에
 있으면 밥이오 없으면 죽을 먹고도
 한 일 못 보아도 굶은 일이 없더라도
 오십에 아들 나아 자손 아기 늙도록
 일생에 덜 밧던 정을 싫도록 따르리다.

9. 嶺南歌(영남가, 1635)

乙亥(을해)。李相國謹元按節嶺南(이상국근원안절령남)。布德宣化(포덕선화)。
視一道如一家(시일도여일가)。當遞(당체)。民皆感恩而願留(민개감은이원류)。
故公作歌以讚美之(고공작가이찬미지)。

을해년(1635) 상국¹⁾ 이근원이 영남에 안절사로 와 임금의 덕을 널리 퍼다.
집안을 다스리듯이 도를 베푸니, 백성들이 은혜를 입어 직을 바꾸어서라도 상국이 남기를 원하였다.
이에 공(작자)이 노래²⁾를 지어 이러한 아름다움을 찬양하다.

嶺南千里外(영남천리외)에 壬辰變後(임진병란) 나쁜 百姓(백성)
賊路 初頭(적로초두)에 어니
世業(세업) 가질년고
遺墟蕪沒(무허무물)흔디 草屋數間(초옥수간) 디어두고
陳荒薄田(진황박전)을 가다 얼미 갈리런고
又 多事(다사)흔디 賦役(부역)³⁾이나 적을년가
朝夕(조석)도 못내 이어 飢寒(기한)애 늘거신들
戀主丹心(연주단심)이야 어니 刻(각)애 이즐년고
白日(백일)갓흔 聖明(성명)이 萬里(만리) 밋글 다보시니
深仁至德(심인지덕)으로 惻怛(측단)흔 뜻을 두사
巡相閣下(순상합하)⁴⁾를 特別(특별)이 보내시니
嶺南殘民(영남잔민)이 再生秋(재생추) 아닌온가

白玉(백옥) 又치 물그시고 河海(하해) 又치 깎흔뜻애
明德新民(명덕신민)을
一身(일신)애 일을 삼아
九經(구경)⁵⁾ 八目(팔목)⁶⁾을 誠敬中(성경중)애 부쳐두고

영남 천 리 밖에 임란 뒤에 남은 백성
왜적이 쳐들어온 길머리에 살아가며
어찌 대대로 이어가며 일을 할까.
황폐하게 남은 터에 초가 몇 칸 지어두고
거칠고 메마른 밭 어찌 갈 것인가.
가뜩이나 일 많은데 부역도 적지 않아
아침저녁 못내 먹어 굶주림에 늙어간들
성주 향한 충성심을 어느 때에 잊을런가.
대낮 같은 성주 지혜 만리 밖을 다 보시니
깊은 어짊과 지극한 덕으로 불쌍하게 여기시고
순찰사를 특별히 내려 보내시니
영남의 쇠한 백성 다시 살지 아니했나.

백옥같이 맑으시고 바다 같은 깊은 뜻으로
덕을 밝히시고 백성을 새롭게 하시네.
순찰사께서 한 몸 다해 일 하시고
구경 팔목 정성을 마음에 붙여두고

1) 삼정승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작자가 75세 때, 당시 영남 순찰사로 왔던 이근원(李謹元)의 덕치(德治)를 찬양하여 읊은 시. 순찰사는 병란(兵亂)이 있을 때 왕명으로 지방의 군무(軍務)를 순찰하던 임시 벼슬.

3) 국가나 공공 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보수 없이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노역.

4) 순찰사를 높여 부르는 말.

5) 국가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아홉 가지 도(道). 곧 수신(修身), 존현(尊賢), 친친(親親), 경대신(敬大臣), 체군신(體群臣), 자서민(子庶民), 내백공(來百工), 유원인(柔遠人), 회제후(懷諸侯).

6) 삼강(三綱)에 이르기 위한 여덟 가지 실천 항목. 곧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

稷契(직설)¹⁾ 皐陶(고요)²⁾ 몸이 되어
 致君堯舜(치군요순)³⁾을 뵈옵고야 말랴 너겨
 承流宣化(승류선화)하야 養民(양민)할 뜻을 두샤
 七十州 一家(칠십주 일가)⁴⁾삼아 父母心(부모심)을 가지시고
 어미 일흔 모든 赤子(적자)⁵⁾ 如保恩(여보은)을 넘히시니
 大旱(대한)애 百穀(백곡)이 時雨(시우)를 만나느닷
 涸轍枯魚(확철고어) | ⁶⁾ 김푼 소애 잠겨느닷
 千千萬萬家(천천만만가)애 德化(덕화)골오 미쳐시니
 不世情東風(불세정동풍)이 혼빛초로 부는듯다
 相國恩波(상국은파)는 견훤 덕 뇌야업닌
 農桑(농상)을 勸(권)히시며 軍政(군정)도 다그치니
 男耕女織(남경여직)애
 萬民(만민)이 安業(안업)하고
 弓矢斯張(궁시상장)하야 武備(무비)도 갖느다
 흐물며 冰玉精神(빙옥정신)애
 霽月胸襟(제월흉금) 품으시고
 盡心國事(진심국사)하야 忠誠(충성)을 다히시며
 學校明倫(학교명륜)을 政事中(정사중)애 大本(대본)삼아
 斯文一事(사문일사)⁷⁾을 己任(기임)을 삼으시니
 吾道幸甚(오도행심)이 時運(시운)이 아니온가
 政治(정치) 이러커니 뉘 아니 感激(감격)히리
 列邑守令(열읍수령)이 相國(상국)의 法(법)을 맞아
 愛民一心(애민일심)이 遠近(원근) 업시 다그치니
 엇그제 石壕村(석호촌)⁸⁾이 武陵桃源(무릉도원) 되엿는가
 竹院松牕(죽원송창)애
 絃誦聲(현송성)을 이어거늘
 綠楊亭畔(녹양정반)애 擊壤歌(격양가)⁹⁾음 불러느니

직설과 고요의 몸이 되어
 요순임금 받들면서 뵈고야 말겠노라고
 선왕의 뜻을 이어 백성을 보살피도다.
 경상도를 한 집 삼아 부모 마음 가지시니
 어미 잃은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듯
 큰 가뭄에 곡식들이 때 맞춘 비 만나는 듯
 마른자리 물고기가 깊은 못에 잠기는 듯
 천천만만 집들마다 덕화 고루 미쳤으니
 세상 드문 봄바람이 한 빛으로 부는구나.
 순찰사가 끼친 은혜 견줄 데 전혀 없네.
 농사 양잠 권하시며 군사 정치 닦으시니
 남자는 밭을 갈며 여자는 베를 짜게
 온 백성이 편안하게 제 일을 맡도록 하고
 활과 화살 벌려놓아 군사 방비 갖추었구나.
 하물며 얼음 같고 옥 같은 정신으로
 비껴 하늘 밝은 달처럼 맑은 마음 품으시고
 마음 다한 나랏일로 충성을 다하시며
 가르침 밝게 하여 정사 중에도 큰 근본으로
 오직 유학 일깨움을 책임으로 삼으시니
 경상도가 다행함은 시운이 아닐런가.
 정치가 이러커니 뉘 아니 감격하니.
 여러 고을 수령들이 순찰사의 법을 받아
 한마음으로 애민하길 원근 없이 다 같으니
 엇그제 석호촌이 무릉도원 되었는가.
 대나무 소나무 우거진 집집마다
 거문고 글 읽는 소리 이어졌거늘
 푸른 버들 정자 옆에서 격양가를 불러내니

1) 설(契)과 后稷(후직). 후직은 중국 요임금 때 농사(農師)라는 직책을 맡았고, 설은 교육의 책임자인 사도(司徒)가 됨. 곧 나라의 중요한 신하.

2) 중국 상고시대의 순임금의 신하로 형욱을 관장함.

3) 요순임금을 받들고 싶음. 곧 요순시대와 같은 태평성대를 만들고 싶어 함.

4) 경상도 전 지역.

5) 발가숭이 어린아이.

6) 수레바퀴 자리에 고였던 물에서 살던 물고기가 물이 마르자 저절로 죽게 됨.

7) 이 학문, 이 도(道)라는 뜻으로, 유학의 도의나 문화를 이르는 말.

8) 중국의 지명으로 전란으로 황폐해진 마을을 의미함.

9) ‘땅을 치며 노래한다’는 뜻으로 요임금 때의 태평세월을 의미함.

無懷氏(무회씨)적 사람인가
 葛天氏(갈천씨)¹⁾씩 百姓(백성)인가
 唐虞盛時(당우 성시)을 오늘 다시 본듯하다
 許多好訟輩(허다호송배)는
 어디로 다 간게오 獄訟(옥송)이 止息(지휴)하니
 囹圄空虛(영어공허) 하니 단말가
 民心(민심)이 感化(감화)해야 절로절로 그러토다
 必也使無訟(필야사무송)을
 千載下(천재하)에 보아고야
 公庭(공정)이 無事(무사)하니 村落(촌락)도 일이업다
 多少行人(다소행인)은 男女分明異路(남녀분명이로)하니
 西疇處處(서주처처)에 耕者讓畔(경자양반) 하니 괴야
 못노라 布穀(포곡)아 이 썩히 어딴
 어즈버 이 몸이 周界(주계)에 드러온듯
 相國風化(상국풍화) 아미도 그지업네

召公(소공)²⁾의 德化(덕화)늦겨 寇君一年(구군일년)³⁾
 嶺南土民(영남사민)들아 이내 말씀 仔細(자세)들소
 相國恩德(상국은덕)을 못 니줄 혼닐흔식
 齊紈(제환)를 만히 사고 眞彩(진채)를 가초어더
 相國風度(상국풍도)를 司馬溫公(사마온공)⁴⁾ 畫像(화상)갓치
 無限無限(무한무한) 그려내야
 嶺南千萬家(영남천만가)에 壁上(벽상)의 부쳐두고
 中心(중심)에 그리온 적이거든 보옵고자 하니

무회씨 때 사람인가,
 갈천씨 때 백성인가.
 요순시대 태평성대 오늘 다시 본 듯하다.
 허다하게 송사를 좋아하던 무리들은
 어디로 다 간 게오, 송사가 멈추었고
 죄 지은 이 없어지니 옥이 비었던 말인가.
 민심이 감동하여 절로절로 그렇도다.
 반드시 송사가 없이 됨을
 천 세대 만에 처음으로 보는구나.
 관가에 일 없으니 마을에도 일이 없다.
 많고 적은 행인들은 남녀 나뉘어 길을 가고
 서쪽 밭둑 곳곳마다 밭 갈기를 양보하네.
 문노라, 뻐꾸기야 이 땅이 어디인가.
 어즈버, 이 몸이 주나라 땅 들어온 듯
 순찰사의 교화가 아마도 끝이 없네.

빌고제라, 소공의 덕화 느껴 가지 말라고.
 영남의 선비 백성들아 이내 말씀 자세히 듣소
 순찰사 은덕을 잊지 않게 한 일 하세.
 고운 비단 많이 사고 진한 물감 갖추어서
 순찰사의 풍채를 사마온공 화상처럼
 무한무한 그려내어
 영남의 천만 집의 벽 위에다 붙여두고
 마음에 그리울 적이거든 보옵고자 하노라.

1) 무회씨, 갈회씨 둘 다 중국 고대의 제왕. 무회씨는 도덕으로 세상을 다스려 백성들이 사욕이 없었다고 하며, 갈회씨는 교화를 퍼지 않아도 저절로 교화가 이루어져 태평하였다고 함. 무회씨 갈회씨의 백성을 욕심없고 순박한 사람을 가리킴.

2) 중국 주(周)나라의 정치가로 연(燕)나라 시조(始祖)이기도 함. 여기서는 순찰사를 가리킴.

3) 임기가 다 되어 떠나는 관리를 고을 사람들이 일 년만 더 있어 달라고 가는 길을 막음.

4) 중국 북송(北宋)의 정치가이자 사학자.

10. 蘆溪歌(노계가, 1636)

白首(백수)에 訪水 尋山(방수심산)
 太晚(태면)흔 줄 알것마는
 平生 素志(평생 소지)를 뵈고야 말라 너겨
 赤鼠(적서)¹⁾ 三春(삼춘)에 春服(춘복)을 새로 입고
 竹杖芒鞋(죽장망혜)로 蘆溪(노계) 깎흔 골의
 헝혀 마참 차즈오니
 第一江山(제일강산)이 넘지 업시 브러느다
 告往今來(고왕금래)에
 幽人 處士(유인처사)들이 만히도 잇것마는
 天慳 地秘(천간 지비)²⁾헝야
 님를 주랴 남겼셋다

躊躇 良久(주저 양구)타가
 夕陽(석양)이 거윈 적의
 陟彼 高岡(척피 거강)³⁾헝야 四隅(사우)로 도라보니
 玄武 朱雀(현무 주작)⁴⁾과 左右 龍虎(좌우 용호)⁵⁾도
 그린듯시 ㄴ갓고야
 山脈(산맥) 밋친 아리
 藏風 向陽(장풍 향양)⁶⁾헝디
 靑蘿(청라)⁷⁾를 혀리 드리 數椽 蝸室(수연 와실)⁸⁾을
 背山臨流(배산임수)헝야
 五柳邊(오류변)⁹⁾에 디여 두고
 斷岸千尺(단애천척)이 거던 龍(용)이 머무는듯
 江頭(강두)에 둘렀거늘 草草亭(초초정) 헝두 間(간)을

흰 머리에 물을 찾고 산을 찾기에는
 이미 늦은 줄 알지마는
 평생에 품은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병자년 삼월 봄에 봄옷을 새로 입고
 대지팡이 짚신 신고 노계의 깊은 골에
 행여 마침 찾아오니
 제일강산이 임자 없이 버려졌네.
 예로부터 지금까지
 숨어사는 선비들이 많이도 있었지만
 하늘이 숨겨두고 땅이 감추었으니
 내게 주려 남겼구나.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머물다가
 저녁놀이 다해갈 때
 저 높은 언덕 올라 사방을 돌아보니
 남북은 현무 주작, 좌우는 청룡 백호
 그림처럼 갖추었구나.
 산줄기 이어지다 뻗혀있는 아래에다
 바람을 가둬두고 햇빛을 향한 곳에
 푸른 덩굴 걷어내고 두어 서까래 작은 집을
 뒤에는 산을 두고 앞에는 물을 안아
 다섯 버들 늘어선 물가에 지었으며,
 깎아지른 천 길 절벽에 날던 용이 머무는 듯
 강나루에 둘렀거늘 초초정 한 두 칸을

1) 병자년, 1636년

2) 하늘이 숨겨 놓고, 땅이 감추어 둔.

3) 높은 언덕에 오름.

4) 현무는 북쪽을 지키는 신령을 상징하는 짐승으로 거북과 뱀이 뭉친 모습. 주작은 남쪽을 지키는 신령으로 붉은 봉황의 모습

5) 용(청룡)은 동쪽을 지키는 신령으로 용의 모습. 호(백호)는 서쪽을 지키는 신령으로 호랑이의 모습.

6) 바람을 갈무리하고 햇볕드는 쪽으로 향함.

7) 푸른 담쟁이덩굴

8) 두어 서까래를 이은 달팽이 껍질만한 작은 집.

9) 중국 진나라 도연명이 귀거래 했을 때, 고향집에서 맞아주었다는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

구름 썬 긴 솔아리 바회 디켜 여러너니
 天態萬狀(천태만상)이 아마도 奇異(기이)코야
 峯巒(봉만)은 秀麗(수려)하야 富春山(부춘산)¹⁾이 되야 잇고
 流水(유수)는 盤回(반회)하야 七里灘(칠리탄)²⁾이 되야거든
 十里明沙(십리명사)는 三月(삼월)눈이 되엿느다
 이 湖山形勝(호산형승)은 견술딕 너야 업너
 巢許(소허)³⁾도 아닌 몸애 어너 絶義(절의) 알리마는
 偶然時來(우연시래)에 이 名區(명구) 임지되어
 靑山流水(청산유수)와 明月淸風(명월청풍)도
 말업시 절로절로
 어즈러운 鷗鷺(구로)와
 數(수)업슨 鹿(록)도 갑업시 절로절로
 沮溺(저익)⁴⁾ 가던 묵은 밧과
 嚴子陵(엄자릉)의 臺(대)도 갑업시 절로절로
 山中百物(신중백물)이 다 절로 己物(기물)되니
 子陵(자릉)이 돌이요 沮溺(저익)이 서히로다⁵⁾
 어즈버 이 몸이 아마도 怪異(기이)코야
 入山當年(입산당년)에 隱君子(은군자) 되얏는가
 千古芳名(천고방명)을 이 혼 몸애 傳(전)토코야
 人間(인간)의 일홈이 人力(인력)으로 일월소나
 山川(산천)이 靈異(영이)하야 도아닌가 너기로라
 中心(중심)이 瑩然(형연)하야 世廬(세려) 절로 그쳐디니
 光風霽月(광풍제월)⁶⁾이 腔子裏(강자리)⁷⁾에 품엇는듯
 浩然眞趣(호연진취) 날로 새롭호노왜라
 飛禽走獸(비금주수)⁸⁾는 六畜(육축)⁹⁾이 되얏거늘
 달 알이 괴기낙고 구름 속의 밧홀 가라
 먹고 굿나마도 그칠 적은 업느왜라
 無盡(무진)한 江山(강산)과 許多(허다)한 閑田(한전)은

구름 썬 긴 솔 아래 바위 기대 지어내니
 천만 가지 모습들이 아마도 기이하네.
 산봉우리 아름다워 부춘산이 되었거나
 물을 돌아 빙빙 흘러 칠리탄이 되었구나.
 십리길 모래밭은 눈처럼 흰 빛인데
 이 물과 산의 빼어남을 어디에 견주겠나.
 소부 허유 아닌 내가 어찌 절의 알 리마는
 우연히 때가 와서 이름난 이곳 임자 되어
 푸른 산, 흐르는 물, 밝은 달, 맑은 바람
 말없이 절로절로
 어지럽게 날아가는 갈매기와 해오라기
 수 많은 사슴들도 값없이 절로절로
 장저와 걸닉이 김매던 묵은 밧과
 엄자릉이 낚시하던 낚시터도 절로절로
 산중의 모든 경치 다 절로 내 것 되니
 자릉이 돌이요, 저익이 셋이로다.
 어즈버 이 몸이 아마도 기이하여
 올해 산에 들었으니 숨은 군자 되었는가.
 아름다운 옛 이름이 이 한 몸에 전했구나.
 인간의 이 이름을 인력으로 이를 소냐.
 산천이 영험하여 도왔는 줄 여기노라.
 마음속이 흰해지며 세상 근심 그쳤으니
 맑은 바람 밝은 달을 마음속에 품엇는 듯
 넓고도 참된 벗은 나날이 새로워라.
 날짐승 길짐승은 가축이 되었거늘
 달 아래서 고기 낚고 구름 속에 밧을 갈아
 먹고 나서 안 남아도 그만두지 않으리라.
 다함 없는 강산과 널려있는 묵은 밧은

1) 중국 후한 광무제 때 엄광(嚴光, 엄자릉)이 낚시하며 숨어 살던 곳

2) 부춘산에 흐르는 긴 여울

3) 소부와 허유.

4) 장저(長沮)와 걸닉(桀溺). 중국 춘추시대 초(楚)나라의 은자들.

5) 엄광과 자신을 함께 세어 엄광이 돌이고, 역시 장저와 걸닉과 자신을 함께 세어 저익이 셋이라 함.

6) 비 온 뒤에 맑게 부는 바람과 맑은 달

7) 원래의 의미는 뱃속이나 여기서는 마음속

8) 날아다니는 새들과 기어 다니는 짐승들

9) 집에서 기르는 대표적인 여섯 가지 가축. 소, 말, 양, 돼지, 개, 닭.

分給子孫(분급자손) 흐려이와
 明月淸風(명월청풍)은 논흐류기 어려울식
 才與 不才(재여부재)예
 養志(양지)흐는 아들 혼아
 太白(태백) 淵明(연명) 證筆(증필)¹⁾예
 永永 別給(영영별급) 흐렷로라
 내의 이 말이 迂濶(우활)흔 듯 흐것마는
 爲子 孫計(위자 손계)는 다만인가 너기로다
 또 어린 이 몸은 仁者(인자)도 아니요
 智者(지자)도 아니로되
 山水(산수)애 癖(벽)이러 늘글수록 더욱흐니
 기 貴(귀)흔 三公(삼공)과 이 江山(강산)을 밧골소냐
 어리 미친 이 말을 우으리도 하렷마는
 아쁘리 웃어도 나는 도허 너기노라
 흐물며 明時(명시)예 브린 몸이
 흐을 닐이 아조업서
 世間 名利(세간 명리)란 쓴 구름 본덧흐고
 無思 無慮(무사 무려)흐야 物外心(물외심)만 품고 이서
 이닉 生涯(생애)을 山水間(산수간)의 붙두고
 春日(춘일)이 채 긴 제 낙되를 비기쥐고
 葛巾 布衣(갈건 포의)로 釣臺(조대)예 건너오니
 山雨(산우)는 잠깐 개고 太陽(태양)이 췌오논되
 돌근 바람 더되오니 鏡面(경면)이 더욱 발다
 김흔 돌이 다 보이니 괴기 數(수)를 알리로다
 괴기도 나치 이거 놀닐 줄 모르거든
 차마 엇디 낙글넌고
 罷釣徘徊(차조 배회)²⁾흐며 波心(파심)을 구어보니
 雲影 天光(운연 천광)은 얼희여 줌겨논되
 魚躍于淵(어약우연)³⁾을 구름 우히 보아고야
 하 문득 驚恠(경괴)흐야 俯察 仰觀(부찰 양관)⁴⁾흐니
 上下天(상하천)이 宛然(완연)흐다
 一陣 東風(일진 동풍)예

자손에게 나누어 물려 주려니와
 맑은 달 맑은 바람 나눠주기 어려우니
 재주가 있던지 재주가 없던지
 부모 뜻 받들어 섬기는 아들 하나
 이태백 도연명의 이름난 글귀에다
 길이길이 따로 떼어 나누어 주리로다.
 이러한 나의 말이 어리석다 하겠지만
 자손 위한 계책에는 다만 이 뿐이라.
 어리석은 이 몸은 어진 이도 아니요,
 슬기롭지도 아니하니
 자연을 좋아함이 늙을수록 더해지니
 저 귀한 삼정승과 이 강산을 바꾸겠나.
 어리석은 이 말을 비웃기도 하겠지만
 아무리 웃어도 나는 좋게 여기노라.
 하물며 평안한 세상에서 버려진 몸
 할 일이 아주 없어
 세상의 명예 이익 뜬 구름 본 듯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자연만을 생각하니
 이내 생애를 산수 간에 붙여 두고
 봄날이 채 길 제 낚싯대를 비껴 쥐고
 갈건 쓰고 베옷입고 낚시터로 건너오니
 산비가 잠깐 개어 햇별이 뜨거운데
 맑은 바람 더디 오니 물결이 거울이라.
 깊은 돌도 다 보이니 고기 수를 알 리로다.
 고기도 낚이 익어 놀랄 줄 모르거든
 차마 어이 낚을런가.
 이리저리 거닐면서 물결을 굽어보니
 구름 그림자 하늘빛이 어리어 잠겼는데
 물고기가 뛰는 모양 구름 위에 보이누나.
 문득 놀랍고 괴상하여 굽어보고 살펴보니
 위아래 하늘이 모두 다 뚜렷하다.
 한 줄기 동풍에다

1)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의 증인과 이것을 직접 쓴 사람.

2) 낚시를 파하고 이리저리 거닐음.

3) 물고기들이 못에서 뛰어 놀음.

4) 굽어 살피고 우러러 쳐다 봄.

기엿진 漁笛(어적)이 읊히 부러 보닛던고
 江天(강천)이 寥寂(요적)흔디 반가와도 들리누나
 臨風 倚杖(임풍 의장)하야
 左右(좌우)로 도라보니
 臺中淸景(대중청경)이 아마도 蕭灑(소쇄)코야
 물도 하늘갓고 하늘도 물갓흐니
 碧水長天(벽수장천)은 흐릿디 되얏거든
 물가에 白鷗(백구)는 오논듯 가논듯
 곱칠 줄을 모르누나
 巖畔 山花(암반 산화)는 錦繡屏(금수병)이 되야 잇고
 澗邊 垂楊(간변 수양)은 草綠帳(초록장)이 되야거든
 良辰 佳景(양진 가경)을 내 혼자 거느리고
 正值 花時(정치 회시)¹⁾를 虛度치 밀나 너겨
 아희 불너 하는 말슴이
 深山 窮谷(심산 궁곡)에 海錯(해작)이야 보로소나
 살진 고사리 香氣(향기)흔 當歸草(당귀초)를
 豬脯 鹿脯(저포 녹포)²⁾ 相間(상간)하야
 크나큰 細柳筍(세유사)에 洽足(흡족)히 다마두고
 鮒魚膾(부어회) 初味(초미)에
 訥魚(눌어) 生雉(생치) 서거 구어
 빗빗치 드리거든
 瓦樽(와준)에 白酒(백주)를 박잔의 가득 부어
 흔 잔 쏘 흔 잔 醉(취)토록 먹은 後(후)에
 桃花(도화)는 紅雨(홍우)되야 醉面(취면)에 쏠리논디
 苔磯(태기) 너븐 돌애 읊히 베고 누어시니
 無懷氏(무회씨) 적 사름인가
 葛天氏(갈천씨) 썩 百姓(백성)³⁾인가
 羲皇盛時(희황 성시)⁴⁾를 다시 본가 너기로라

이 힘이 뉘 힘고 聖恩(성은)이 아니신가

어찌하여 어부 피리 높이 불어 보내는가.
 강과 하늘 고요하니 반갑게도 들리누나.
 바람을 맞으며 지팡이에 의지하여
 좌우를 돌아보니
 낚시터의 좋은 경치 너무도 깨끗하구나.
 물도 하늘 같고 하늘도 물 같으니
 푸른 물 큰 하늘은 한 빛이 되었거든
 물가의 갈매기는 오는 듯 가는 듯
 곱칠 줄을 모르누나.
 바위 위에 핀 산꽃은 수놓은 비단 병풍이요,
 여울 가 버들가지 초록 장막 되었거든
 좋은 시절 좋은 경치 나 혼자 거느리고
 바로 꽃이 한창일 때 헛되이 안 보내려
 아이 불러 하는 말이
 깊고 깊은 산골에서 해산물을 맛보겠나.
 살찐 고사리에 향기 나는 당귀풀을
 저포 녹포 사이애다 쟁여 두었다가
 큰 버들 바구니에 흡족하게 담아 두고
 붕어로 회를 쳐서 첫맛을 즐긴 뒤에
 누치와 꿩고기를 섞어서 구웠다가
 가지가지 들이거든
 흠 그릇에 막걸리를 거친 잔에 가득 부어
 한 잔 또 한 잔 취하도록 마신 후에
 복사꽃은 붉은 비로 취한 얼굴에 흠어지고
 이끼 낀 넓은 바위 높이 베고 누웠으니
 무회씨 때 사름인가,
 갈천씨 때 백성인가.
 복희씨 때 태평성대 다시 보면 여기로다.

이 힘이 뉘 힘인가, 성은이 아니신가.

1) 바로 꽃이 한창일 때

2) 말린 돼지고기, 사슴고기

3) 무회씨, 갈회씨 둘 다 중국 고대의 제왕. 무회씨는 도덕으로 세상을 다스려 백성들이 사육이 없었다고 하며, 가회씨는 교화를 퍼지 않아도 저절로 교화가 이루어져 태평하였다고 함. 무회씨 갈회씨의 백성을 욕심없고 순박한 사람을 가리킴.

4) 복희씨(伏羲氏).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으로 팔괘를 처음으로 만들고, 그물을 발명하여 고기잡이의 방법을 가르쳤다고 함.

江湖(강호)에 물너신들 憂君一念(우군일념)이야
 어긋 刻(각)에 이줄는고
 時時(시시)로 머리 드러 北辰(북신)¹⁾을 바라보고
 늙 모르는 눈물을 天一方(천일방)의 디이느다
 一生(일생)애 품은 뜻을 비웁느다 하느님아
 山平 海渴(산평 해갈)토록
 우리 聖主(성주) 萬歲(만세)소서
 熙皞 世界(희호 세계)²⁾에
 三代 日月(삼대 일월)³⁾ 빛취소서
 於千萬年(어천만년)에 兵革(병혁)을 쉬우소서
 耕田 鑿井(경적 착정)⁴⁾에
 擊壤歌(격양가)⁵⁾를 불리소서
 이 몸은 이 江山風月(강산풍월)에 늘글 주를 모르로라

강호로 물러난들 성주 위한 걱정이야
 어느 때에 그치겠나.
 때때로 머리 들어 북극성을 바라보고
 남모르는 눈물을 하늘 아래 뿌리도다.
 일생애 품은 뜻을 비웁니다, 하느님아.
 산이 평평해지고 바다가 마르도록
 우리 성주 만세를 누리소서.
 백성들이 화락하니
 삼대의 해와 달을 비추어 주소서.
 천년만년 전쟁을 쉬게 하소서.
 우물 파고 밭을 갈며
 격양가를 부르게 하소서.
 이 몸이 강산풍월에서 늙을 줄을 모르나이다.

1) 북극성, 여기서는 임금.

2) 백성들이 화락하게 살아가는 세계

3) 중국 하, 은, 주 세 나라 시대의 해와 달

4) 밭을 갈고 우물을 팜.

5) ‘땅을 치며 노래한다’는 뜻으로 요임금 때의 태평세월을 의미함.